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2022년 자체평가회의**

2022. 9. 22.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목 차]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4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5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목표 및 달성도	8
①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8
②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도	8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12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6
①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16
②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29
③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32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36
①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36
②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38
③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40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42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42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44
5.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45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49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49

III. 연구역량 영역

1.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53
2. 참여교수 연구역량	59
① 연구비 수주 실적	59
②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및 추진 실적	59
③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62
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63
① 연구성과의 사회 이슈 연계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64
② 대내·외 강연 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65
4.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66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66
②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68

IV.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1.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73
-------------------------------------	----

[표 목 차]

<표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5
<표1-2> 최근 1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5
<표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6
<표1-4> 2021-2학기, 2022-1학기 대학원 신입생 현황	7
<표1-5> 2021-2학기, 2022-1학기 전체참여대학원생 현황	7
<표1-6> 박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9
<표1-7> 석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9
<표1-8> 연구논문 대표 사례	9
<표1-9> 2021-2학기, 2022-1학기 Code Sharing 목록	10
<표2-1> 본 학과의 기초공통과목 신설 현황	17
<표2-2> 전문가 트랙 추가 수료 지정 영역	19
<표2-3> 전문가 초청강연회	22
<표2-4> 제1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선정자 명단	23
<표2-5> 제2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선정자 명단	24
<표2-6> 학기별 기초공통 및 문제탐구 과목 개설 현황	33
<표2-7> 리빙랩 프로젝트 모듈 별 결과물 창출 계획	35
<표2-8>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36
<표2-9> 어젠다 팀 선정 주제	38
<표2-10> 2022.02/2022.08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40
<표2-11> 참여대학원생 주요 연구실적	42
<표2-12> 참여대학원생 주요 학술대회 참여 실적	44
<표2-13>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실적	52
<표3-1> 최근 1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59
<표3-2>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	62
<표3-3>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63
<표3-4>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67
<표3-5>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및 예정 사항	69
<표3-6> 최근 1년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72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4199990514632						
사업 분야	인문학	신청분야	동양언어와 문학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중국어와 문학	중문학	일본어와 문학	일본문학		
	비중(%)	50%		50%			
교육연구단명	국문)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영문)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Nurturing Future-Oriented Human Resources to Lead the Trans-East Asia Age						
교육연구단장	소 속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중어중문학과(부)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전화				
			팩스				
			영문	이동전화			
E-mail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국고지원금	366	732	732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1.9.1.-2022.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김 준 연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트랜스-동아시아	학제 융합	기초공통과목
	이중교육트랙 제도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지정	디지털인문학
	연구 역량 강화	국제화 역량 강화	연구·교육성과 확산(리빙랩)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 아래 최근 1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인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 학제 융합, 기초공통과목의 확대 개설 -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시행 - 해외 석학 강연회를 통한 트랜스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 지식 강화 - <디지털인문학> 강연 시리즈를 제공, 변화하는 학문 환경에 활용할 연구 방법 습득에 일조 -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트랜스 연구의 확대 및 성과 산출		
교육역량 영역 성과	본 교육연구단은 학제 융합과 전공영역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단행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총 5개 전공체계에 따른 개방형 과목 운영 및 Code Sharing 실시 - 기초공통과목 지정 및 확대(총 14개에서 16개로 확대) -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화 및 시행 (2022년 1학기부터) - 전문가트랙 시행을 위한 총 12개의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지정 및 개설 - 지난 1년간 총 11회의 해외석학 강연회 개최 (트랜스 연구 소개 6회, 전공 심화 강연 5회) - 총 9회의 전문가초청 강연회 개최 (<디지털인문학>에 초점) - 국내·외 논문 투고 및 게재 지원, 학술대회 참여 지원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역량은 우수한 석·박사 신입생의 지원, 졸업자 배출, 진학 및 취업 지표로 이어지고 있으며, BK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참여교수: 최근 1년간 논문 28편, 저서 4편에 달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그 학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 제안, 산학 협력 교육 방법론 제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포함한다. 신진연구인력: 최근 1년간 논문 13편을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공동연구 논문을 3편 발표하는 등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여러 관련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참여대학원생: 최근 1년간 총 60편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의 제작과 어젠다 프로젝트 지원 등 교육연구단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논문과 연구업적의 창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LAB 간 경쟁 시스템, 우수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달성 성과 요약	1. 교육역량: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시행 기초공통과목 지정 및 개설, Code Sharing 실시,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지정 및 개설 해외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회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제화·전문화 교육 확대 2. 연구역량: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의 심화·응용·확산 환류 체계 구축 참여인력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향상 달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 산출 3. 사회확산: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의 공유, 사회문제와 관련된 대중미디어 활동,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연, 자문, 산학 연계, 저술,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한 교육연구단 교육성과 확산 등		
미흡한 부분 / 문제점	1) 우수한 대학원생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본 학과와 교육연구단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홍보체계 구축, 학부생 진학 상담 채널 운용 등의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를 흡인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COVID-19로 인한 국제 교류의 한계: 현재 COVID-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국제학술교류 영역에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장·단기 연수 등 주요 활동과 프로그램이 잠정적으		

	로 연기되는 등 교육연구단의 활동 가능 영역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해외석학·전문가 초청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하고 있다. 3) 지역, 산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활동 확충 필요: 최근 1년의 성과 중 지식 대중 확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산업, 사회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차년도 추진계획	- 통섭 인재 양성: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 제도의 성공적 운용 - 연구역량 지속 강화: LAB 통한 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활성화 - 국제화 역량 강화: 다양한 국제학술교류 추진 (국제학회 참여, 발표 등) -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리빙랩 사업 추진 및 확산: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선정됨. 교육·연구 성과의 사회문제 연계 및 확산 노력 다변화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명	한글	영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중어중문학과(부)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선정 시 단장이었던 교수가 2021년 2월 연구년으로 이임하게 되어 교수가 승계하였다. 교수는 BK21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지니고 있다. 교수의 교육역량, 연구역량, 국제화역량, 행정역량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역량

학부 수업으로는 <중국고전시가>, <중국고전강독>, <인물로보는중국문화> 등의 강의를 개설하였다. 대학원 수업으로는 주전공 분야인 <중국시가연구>, <중국시론연구>, <전서연구>, <중국사문학연구>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학과예술연구>, <동아시아문학지리학>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21-2학기에 개설한 <동아시아문학지리학>에서는 문학지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트랜스-동아시아’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형 연구방법론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문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중국학논총』, 2021.06)을 발표한 데 이어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2022.06)을 발표하여 대학원과 학부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수업 진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대학원 교육 혁신에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5월 자랑스러운 문과대학인상(학계/교육계 부문)을 수상하였다.

◆ 연구역량

최근 5년간 총 1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중국 고전 시가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논문 외에도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중국문학』 106권, 2021.02), 「당대 시인의 사회 연결망 분석(1): 社交詩에 대한 빅데이터와 인포그래픽 기반의 접근」(『중국학보』 82권, 2017.11), 「당대 시인의 사회 연결망 분석(2)」(『중국학보』 91권, 2020.02) 등 디지털인문학 지식과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 기간 저서, 역서 및 편서는 총 11권이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아시아학의 이해』(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문화를 잇다 중국을 잇다: 인물로 보는 중국문화 28강』(뿌리와이파리, 2019) 등이 있다. 편서로는 『시인, 사랑을 노래하다』(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가 있다. 특히 최근 역서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은 가

독성 높은 번역과 충실한 주석의 학술성을 인정받아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국제화역량

2단계 BK21사업, 3단계 BK21plus사업부터 현재까지 참여교수로 활동하면서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2016),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201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UCSB], 2019)와의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학회 논문 발표실적으로는 2016년 1월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2017년 2월 호주국립대학, 2018년 1월 홍콩대학, 2019년 1월 미국 UCSB에서의 발표 등이 있다. 특히, 2013년에 미국 오리건 주립대(University of Oregon)에서 1년 동안 방문학자를 지낸 것을 토대로, 구미 지역까지 망라한 글로벌한 교류망을 구축하고 있다.

◆ 행정역량

2007년 본교에 부임한 이래 교육 및 연구 관련 행정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17-2019년에는 본교 문과대학 연구부학장으로 교육행정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2019-2020년에는 본 교육연구단의 부단장으로서 발군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21년부터는 중일어문학과와 대학원 주임을 맡아 대학원생의 생활과 연구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융합연구원 디지털인문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문과대학 12개 학과의 신입생들에게 <디지털인문학>이라는 교양 필수과목을 전담하는 한편, 격변하는 시기에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이사, 한국중국어문학회 기획이사,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윤리위원, 중국어문연구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중일어문학과	21년 2학기	16명	16명	100%	
	22년 1학기	17명	17명	100%	신규임용

<표 1-2> 최근 1년간(2021.09-2022.08)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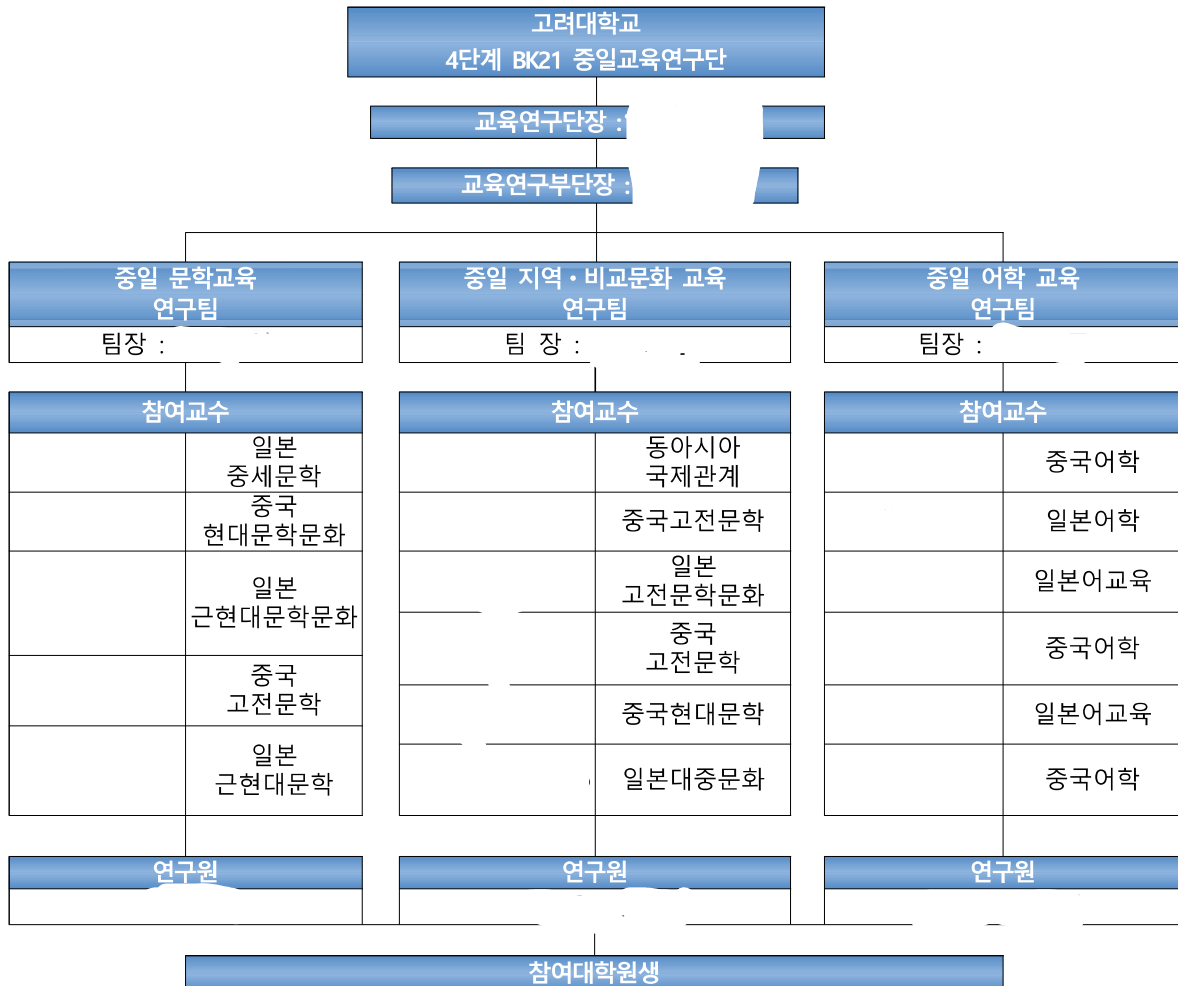
대학원 학과(부)	성명	변동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중일어문학과		2022-1학기	전입	신규임용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중일어문학과	21년 2학기	70	21	30.00	76	30	39.47	146	51	34.93
	22년 1학기	72	16	22.22	78	26	33.33	150	42	28.00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한 전공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다.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및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조직 현황(2022.08)



본 교육연구단의 2022년 8월 현재 참여인력 구성은 참여교수 17명, 신진연구인력 5명, 참여대학원생 93명(2021-2학기 51명, 2022-1학기 42명), 행정직원 1명이다.

최근 1년간 본 학과의 신입생은 총 43명(석사 32명, 박사 11명)으로, 국내 인문계 대학원의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학생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021-2학기, 2022-1학기 대학원 신입생 현황과, 2021-2학기, 2022-1학기 참여대학원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4〉 2021-2학기, 2022-1학기 대학원 신입생 현황

학기	석사	박사	합계
2021-2학기	14	5	19
2022-1학기	18	6	24
합계	32	11	43

〈표 1-5〉 2021-2학기, 2022-1학기 전체참여대학원생 현황*

학기	지원참여대학원생		일반참여대학원생	
	석사	박사	석사	박사
2021-2학기	13	23	8	7
2022-1학기	14	24	2	2
합계	27	47	10	9

*전체참여대학원생은 장학금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참여대학원생과 일반참여대학원생으로 나뉜다.

본 교육연구단은 지난 1년간 석사 27명과 박사 4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대학원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장학금은 BK규정에 따라 6개월간 석사 70만원/월(총액 420만원), 박사과정 130만원/월(총액 780만원), 박사수료 100만원/월(총액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지원대학원생과 참여대학원생에게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과 논문 게재료 지원, 논문 클리닉을 통한 논문 작성법 지도, 국제학술지 논문투고 ONE-STOP 지원(세부사항은 pp.59-60 참조)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 및 국내·국제 논문 게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방법론을 습득하고, 디지털 전환 시기의 인문학 연구방법에 대해 시야를 확장하며, 전공 심화 강연을 통해 각자의 전공 지식을 공고히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목표 및 달성도

①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본 학과는 2006년도 2단계 BK21사업을 계기로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가 ‘중일어문학과’로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2013년도 3단계 BK21Plus사업에서는 세계화 추세와 학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30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우수한 사업 수행 결과로 2단계뿐 아니라 2019년에 있었던 3단계 성과 보고에서 외국어 부분 패널 중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4단계 BK21사업에서는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 아래 2개의 교육 비전(트랜스 개념의 교육과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과 5대 목표(Trans-Disciplinary, Trans-Knowledge, Trans-National, Trans-Society, Trans-Koreanology)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의 2대 교육 비전과 5대 목표

②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도

4단계 BK21사업 이후 현재까지 본 학과는 위에서 언급한 2개의 교육 비전(트랜스 개념의 교육과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뿐만 아니라 통섭적 창의 인재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이는 최근 1년간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 및 참여인력(신진연구인력)의 공동연구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박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성명	졸업년월	학위 논문 제목
	2022.02	한일 양국의 대 중국 정책 인식 비교연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인식에 대한 담론·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2022.08	한일 온라인 담화에서의 정당화 스트래티지: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YouTube 댓글을 중심으로

〈표 1-7〉 석사학위논문 대표 사례

성명	졸업년월	학위 논문 제목
	2022.02	한국어와 일본어의 복수 표지의 특징: ‘-들’과 ‘-たち’를 중심으로
	2022.02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언어 전이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인식 연구: 학습자 작문에서 산출된 한자어휘를 중심으로
	2022.08	한·중·일 기본색채어 확장적 의미에 관한 대조 연구: ‘黑’, ‘白’, ‘赤’를 중심으로
	2022.08	한국 개작소설 『적벽가전』과 모종강본 『三國演義』의 적벽대전 서사 비교 연구
	2022.08	한일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テイル’의 증거성

〈표 1-8〉 연구논문 대표 사례

성명	출간연월	연구 논문 제목
	2022.05	트랜스-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4권, 대한일어일문학회, pp.149-169)
	2022.06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학논총』 76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43-74)
	2022.08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중국소설논총』 6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pp.495-520)

아래에서는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이 5대 목표를 달성하고자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설명하겠다.

가. Trans-Disciplinary: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본 교육연구단의 미래 인재상인 ‘트랜스 지식인’ 양성을 위해서는 중일어문학의 학문적 융합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의 융합과 학술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트랜스-동아시아 연구가 가능하도록 과감한 학제융합, 어젠다형 연구 방법론 제시, 소규모 연구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Core Curriculum을 확대하고, Cross-Listings와 Code Sharing을 시행함으로써, 타과 전공 교차 수강과 공통 학점 인정 과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이루었다.

지난 1년간 Code Sharing을 통해 중일어문학과 대학원생들이 타과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총 10건이다. 아래의 표는 이들이 수강한 타과 과목을 열거하였다. 이는 Code sharing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본 학과의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며 폭넓은 지식을 쌓고,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표 1-9〉 2021-2학기, 2022-1학기 Code Sharing 목록

학기	과정	이름	학수번호	교과목명
2021-2학기	박사		EDU515	교육연구방법론
2021-2학기	박사		CLT701	한문시가번역실습1
2021-2학기	박사		CLT508	초서해독연습
2021-2학기	박사		PSY4130	언어획득
2022-1학기	석사		IMA503	영상과인문학
2022-1학기	석사		BUS529	대학원영어논문쓰기(영강)
2022-1학기	박사		KOR502	현대국어학연구
2022-1학기	박사		KOR502	현대국어학연구
2022-1학기	박사		CLT509	경서세미나
2022-1학기	박사		CLT621	중국경학사

한편 구성원들의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3월, 4명의 신진 연구인력이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 (ver. 1.0)」을 작성, 전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젠다에 적합한 연구성과 산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 학기 초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pp.23-24 참조), 어젠다 관련 소규모 연구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Trans-Knowledge: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Trans-Knowledge’는 기존의 동아시아 교육과 연구방법의 틀을 깨는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을 지칭한다. 현재 중일어문학(문화, 지역, 비교연구 포함) 분야에서도 Data Science 등을 활용하여 이룩한 선도적인 학문성고를 바탕으로 정보의 데이터화 및 분석과 활용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Trans-Knowledge’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디지털인문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인문학 특강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기 중일어문학 연구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활용할 기회를 풍부히 제공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pp.20-22 참조). 또한,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4차산업혁명시대의트랜스-동아시아> 등의 과목을 신설하였다.

다. Trans-National: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 선도

동아시아학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전망을 그려내고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내 공동연구(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참여교수-국외교수-참여대학원생)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학자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술지 논문투고 ONE-STOP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 Trans-Society: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으나,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충돌 역시 빈번하였다. 최근 들어 한·중·일 사이에 팽배한 과도한 혐오감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한·중·일 사이의 이해를 넓히고, 일반인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초청강연회,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회담 및 소프트인문학 강연,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중에 있다(☞ 세부사항은 pp.33-35 참조). 이러한 결과물을 온라인 채널(가칭 ‘트랜스-동아시아 TV’)에 탑재하여 대중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한·중·일 관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마. Trans-Koreanology: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그동안의 동아시아학 연구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권을 쥔 가운데, 한국은 연구성과나 영향력으로 볼 때 변방에 머물렀던 감이 없지 않다. 본 교육연구단은 그동안의 동아시아학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한국적 시각이 반영된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의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PBL(Project-Based Learning) 유형 과목을 신설하고,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1.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학과의 개설 과목은 크게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전공, 일본문학·문화 전공, 중일지역·비교문화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본 학과의 강의는 전공 지식의 습득 및 심화를 다루는 동시에, 급변하는 학문적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개설된 본 학과의 대학원 과목을 통하여 본 교육연구단이 5대 목표(Trans-Disciplinary, Trans-Knowledge, Trans-National, Trans-Society, Trans-Koreanology)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목표에 부합하는 강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Trans-Disciplinary: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교수: <동아시아언어문화> (기초공통과목)

본 강의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요 언어의 유형, 계통, 구조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중국 문자의 구조와 변천, 고대 음운, 방언의 분류와 각 방언의 어법적, 어휘적, 음운적 특색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어(漢語)와 이웃 언어 간의 접촉 관계를 통한 언어 발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본 강의를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 포진한 여러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가 중국어나 일본어, 한국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는 담기 어려웠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것이 이 과목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교수: <동아시아문학지리학> (기초공통과목)

본 강의는 문학지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문학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어젠다형 연구방법론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본 강의는 중문 전공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문 전공 대학원생 또한 수강하였다. 본 강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총 3편의 대학원생 연구논문이 국내전 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이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을 수행함으로써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연구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교수: <문헌정보와자료조사> (기초공통과목)

본 강의는 문헌 자료와 정보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문헌 정보와 자료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자료 및 논문을 검색하는 훈련을 하였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 주제별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정보센터의 기능과 정보수집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다.

◆ Trans-Knowledge: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교수: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본 강의는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의 PBL 유형 강의에 해당하며, 본 교육연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트랙을 시행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전문가트랙에 관한 세부사항은 pp.19-20 참조). 본 강의에서는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된 현실적, 사회적, 국제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덧붙여, 그러한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해당 이슈의 실제적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 또는 사실관계가 충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열린 3차례의 특강(오픈소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활용법, 오픈소스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오픈소스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 Trans-National: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 선도

교수: <일본문화와동남아시아2>

본 강의에서는 일본 문학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수강생들의 연구능력 증진을 위해 쌍방향 학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향후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였다. 본 강의를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일본과 동남아시아’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조선총독부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남양(南洋)> 지역 관련기사(1910-1935) 연구」(『일본연구』, 2022.02)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교수: <일본대중문학·문화와동아시아1>

본 강의에서는 현대 대중문학이나 문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근대부터 대중문학·문화의 형성과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 대중문학·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장르의 특성과 이들 대중문학·문화 장르가 한국에 언제 어떻게 수용, 변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강의에서는 대중문학·문화연구 방법론에 대해 논하였으며, 수강자 각자의 연구 주제를 문화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지도하였다. 궁극적으로 ‘**문학’이라는 일국 중심의 문학 개념의 한계를 이해하고 동아시아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수: <일본근현대문학연구방법론1>

본 강의에서는 최신의 미디어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한국의 일본 문화 수용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변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수강생들이 각자의 연구성과를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일본 근현대문학과 미디어 연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수: <동아시아문화예술과예술>

본 강의에서는 동아시아문화유산과 예술이 현대 사회, 문화, 정치환경 속에서 어떻게 수용, 육성, 굴절되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태국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과 문화유산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시각에서 문화예술의 문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강의는 중일비교문화과목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수업과 수강생들의 조사·발표로 진행하였다.

교수: <일본어문법사1>

본 강의는 일본어의 대표적인 문법 현상을 대상으로 문법사적 측면에서 그 배경 파악과 발생원인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본질을 규명하였다. 특히 시대적으로는 현대일본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언어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본어를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학에서 주목하는 보편성과 일반성의 문제에 대해 재고하였다.

교수: <일본어학개론>, <일본어교수법>

교수는 2021-2학기에 <일본어학 개론>, 2022-1학기에 <일본어교수법>을 담당하여, 각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수강생들의 상호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母語話者)와 비모어화자(非母語話者)의 시점 차이, 한·중·일 언어 비교 등 유동적인 시점으로 여러 상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수: <중국어어휘론1>

본 강의에서는 생성문법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관련 어법 현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 보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중국어의 언어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나아가 한국어에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 Trans-Society: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교수: <일본고전문학연구방법론 I>

본 강의에서는 일본 중세의 전통극인 노(能)의 작품 중 2021-2학기에 다루었던 <히가키(檜垣)>에 이어 노녀(老女)를 소재로 한 3대 비곡(秘曲) 중 하나인 <오바스테(姨捨)>를 강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본 강의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노인 혐오가 증가하는 오늘날 이 텍스트가 어떤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중·일 학생의 발표를 통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였다. <오바스테>의 바탕이 되는 기로설화(耆老說話)가 중국의 <효자전(孝子傳)>이나 한국의 고려장 설화와 유사하면서도 일본의 독특한 세계관을 드러내는 점에서, <오바스테>에 관한 분석과 발표 과정은 학생들이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와 연계 및 확장하여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Trans-Koreanology: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교수: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본 강의는 4단계 BK21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수업의 대주제는 ‘현대성’과 ‘20세기 중국문학’으로, 우선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습득을 도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현대문학의 다양한 전개 양상, 중국문학의 현대화 과정, 중국현대문학 관념과 서구 문학 관념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본 강의는 PBL 유형 교과목으로, 수강생들이 중국현대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그것의 해결을 위해 토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학기말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수: <비교민속학>

본 강의는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삼국지』 또는 『삼국연의』와 관련된 유·무형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헌 및 자료를 해독·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업의 일환으로 『삼국연의』와 관련된 문화재와 관우묘를 답사하였다. 『삼국지』와 『삼국연의』는 중국에서 편찬된 이후 동아시아로도 전파되어 오랜 시간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치관, 역사관 및 사유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한국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은 한국적 시각으로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제1항에서는 전반적인 실적을 다루고, 제2항에서는 산업·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다루겠다.

①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명문 대학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선진적인 동아시아 교육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외 우수 대학을 벤치마킹한 결과, 이들 대학의 교육과정이 ‘전공영역의 전문화와 학제 융합의 동시 추구’ 및 ‘전인적 인재 양성을 통한 학문 영역의 횡단’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트랜스 교육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비전과 연구 어젠다에 부합하는 중일 기초공통 과목 16개 신설(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대비 2과목 추가 신설)
- 변화된 대학원 환경과 대학원생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하여 연구자 양성과정인 ‘연구자트랙’과 전문가 양성과정인 ‘전문가트랙’을 두고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시행 중
- ‘전문가트랙’ 운영을 위해 ‘문제탐구’ 유형 과목 6개, ‘창의과제’ 유형 과목 6개 신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과정 개편

ㄱ. 전공영역의 전문화

본 교육연구단은 전공에 대한 전문화와 내실화, 통합화를 도모하고 시대적 학문 조류를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개의 전공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제 간 연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전공영역별로 특화된 교육 및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과체제가 구축되었다. 5개의 전공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중국어학 전공(Chinese Linguistics)
- 중국문학 전공(Chinese Literature)
- 일본어학·교육 전공(Japanese Linguistics and Education)
- 일본문학·문화 전공(Japanese Literature and Culture)
- 중일지역·비교문화 전공(Chinese and Japanese Area and Comparative Culture Studies)

ㄴ. 기초공통과목의 신설 및 지정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대학원생이 동아시아 관련 학습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20-2학기 총 14개의 기초공통과목을 신설 혹은 지정하였다. 최근 1년간 두 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개설된 기초공통과목은 총 16개 이다.

<표 2-1> 본 학과의 기초공통과목 신설 현황 (2022년 8월 현재)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기초공통	CJL723	일본어문법론 I (JAPANESE GRAMMAR I)
	CJL739	일본어교육연구 I (STUDIES IN JAPANESE EDUCATION I)
	CJL1009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RESEARCH ETHICS AND THESIS WRITING)
	CJL1343	중상급전공일본어(ACADEMIC JAPANESE INTERMEDIATE/ADVANCED LEVEL) (추가 지정)
	CJL1345	초중급전공일본어(ELEMENTARY-INTERMEDIATE JAPANESE) (추가 지정)
	CJL2000	동아시아언어문화(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CJL2001	동아시아일본어문학(JAPANESE LANGUAGE LITERATURE OF EAST-ASIA)
	CJL2002	동아시아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OF EAST ASIA)
	CJL2003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IES ON EAST ASIAN LITERATURES IN THE AI ERA)
	CJL2004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THE INTELLECTUAL BASIS OF MODERN LITERATURES OF EAST ASIA)
	CJL2005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EAST ASIAN CULTURES AND NEW MEDIA)
	CJL2006	문헌정보와자료조사(LITERATURE INFORMATION AND DATA RESEARCH))
	CJL2007	트랜스동아시아문화론(TRANS EAST ASIAN CULTURAL STUDIES)
	CJL2008	중국어문학 · 지역학과혁신주체의리더십 (INNOVATION LEADERSHIP OF LANGUAGE-LITERATURE RESEARCHES AND AREA STUDIES ON CHINA AND JAPAN)
	CJL2009	학술중국어기초(BASIC ACADEMIC CHINESE)
	CJL2010	학술일본어기초(BASIC ACADEMIC JAPANESE)

위의 기초공통과목 중 2021-2학기에는 <동아시아문학지리학> (교수)이 개설되었으며, 2022-1학기에는 <동아시아언어문화> (교수), <문헌정보와 자료조사> (교수), <중상급전공일본어> (강사)가 개설되었다(☞ 각 기초공통과목의 수업 내용 및 성과는 pp.12-13 참조). 이를 통해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학문적 기본 소양을 갖추고,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신설 기초공통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공통과목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㉔. 개방형 과목 지정과 운영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중국어문학 전공과 일본어문학 전공의 상호 교차 수강과 통합적 교과 운영을 위해 기존의 중일어문학 관련 전공과목 중 개방형 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이 전공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차 수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매 학기 3과목(중국어학 혹은 일본어학 영역에서 1과목, 중국문학 혹은 일본문학 영역에서 1과목, 중일 비교문화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의 개방형 과목의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형 과목은 모든 국적과 전공의 수강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도록 교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2021-2학기에는 <동아시아문학지리학> (교수)이, 2022-1학기에는 <동아시아언어문화> (교수)와 <문헌정보와 자료조사> (교수)가 개방형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나.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실행

국내 인문학의 외국어 관련 분야 대학원의 경우 과거에는 석, 박사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연구자(대학 교원 및 연구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석사과정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고려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1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연구 및 진로 방향에 따라 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학과 석사 재학생은 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시점에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 가운데 한 트랙을 선택한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과목을 지도교수로부터 지정받아 이수해야 한다. 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㉕. 연구자트랙

학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자 양성을 위한 트랙이다. 연구자트랙 과정에 있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와 같다.

- 각 지도교수별 연구회 및 국내·외 석학 초빙 강연회 참여 지원
- 연수 혜택: 교환학생 제도의 기간 세분화를 통한 연수 효과의 극대화 도모(석사: 최대 3개월, 박사과정 및 수료생: 3개월~1년)
- 해외 대학으로의 단기 방문을 활용한 체험 학습 추진
-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연구 업적 창출을 적극 장려(연구회 참여를 통한 논문지도,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장려, 논문 게재료 지원, 국제학술지 논문투고 ONE-STOP 지원 등)

ㄴ. 전문가트랙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교과과정 개편과 실용적 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트랙 이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트랙을 선택할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3학기 이내(2학기 이후)에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부합하는 과목을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이수한다. 전문가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은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에 따라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전문가 트랙 이수 석사과정생의 추가 수료요건 9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취득학점 가운데 6학점은 별표로 제시하는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가운데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3학점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표 2-2〉 전문가 트랙 추가 수료 지정 영역

학수번호	과목명
CJL2800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CJL2801	동아시아문화창의과제
CJL2802	중국어학문제탐구
CJL2803	중국어문화창의과제
CJL2807	일본어학·교육창의과제
CJL2808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
CJL2809	중국고전문화창의과제
CJL2810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CJL2811	중국현대문화창의과제
CJL2812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CJL2813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
CJL2814	일본문학·문화창의과제

- 외국어시험: 연구자트랙과 동일
- 종합시험: 별도 영역에서 출제
- 졸업요건: 논문 대신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대체 실적물(발표/보고/번역/작품/교재 등)을 선택하고, 연구지도학점 과목의 결과물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결과물을 제출한다.

전문가트랙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2022년 5월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물 상세안」을 마련하였다. ‘대체 실적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대체 실적물’의 최소 분량은 원고지 환산 500매로 한다. 본 「상세안」에서는 각 대체 실적물에 대해 가능한 주제, 작성 방법 및 타기관에서 기수행한 참고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 ① 창작·번역물: 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 ② 교재: 중국어 또는 일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 ③ 연구·조사 보고서: 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
- ④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 ⑤ 제안서: 정부 정책 또는 기업 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제안서

-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트랙 운영을 위하여 총 12개의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을 지정하였는데, 2021-2학기에는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교수)가, 2022-1학기에는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교수),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교수)가 개설되었다. 2022-2학기에는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교수),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교수)가 개설되는 등 전문가트랙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총 4명의 참여대학원생(일본문학·문화 전공생 2명과 중일지역·비교문화 전공생 2명)이 전문가트랙을 이수하고 있다. 이들은 번역·출판 캡스톤 디자인(창작·번역물), 연구·조사보고 캡스톤 디자인, 정책 제안·공모 캡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대체 실적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트랙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다.

-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실용적 교육
-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 참가
- 전문가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적 창출 장려
- 유관 기관에 대한 전문 인턴십 제도 지원
- 동아시아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관공서와의 협정을 통한 상호 교류

다. 교과과정과 연계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체계 구축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중일어문학 전공의 심화는 물론, 중일 통합 교육의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교과과정 개편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변화하는 학문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진적 교육시스템과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ㄱ.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

본 교육연구단은 동아시아학 관련 해외석학 초청강연회와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최근 1년간 총 11회 개최되었는데, 그 성격에 따라 크게 ①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트랜스 연구 동향 소개(총6건)와 ② 전공 지식 심화(총5건)로 나뉜다.

[트랜스 연구 동향을 소개한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경영대학원), <태국과 주변국들 관계로 본 동남아> (2021.09.23)
- (중국 광저우대학(廣州大學) 인문학원), <文學地理學的研究方法 (문학지리학의 연구방법)> (2021.11.19)
-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巴別之後: 華語語系文學(Sinophone Literature)의策略性及聲音問題 (시노폰 문학의 책략성과 음성 문제)> (2021.11.26)
- (독일 University of Tübingen Modern Taiwan Studies, Dept. of Chinese Studies), <亞洲跨境移動與性別: 以台灣為例 (트랜스-아시아적 모빌리티와 젠더: 대만을 사례로)>, (2022.06.17)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Dept. of Asian languages & literature), <Sinographic script borrowing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한자 차용 및 전파 양상)> (2022.07.14)

이러한 강연회를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 해외의 트랜스 연구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공 심화 강연회] 중국어학 관련 강연 2건, 중국문학 관련 강연 2건, 일본어학 관련 강연 1건

* 중국어학 강연:

- (홍콩과기대학 인문학부), <聲調兩級分化理論與北京話不規則的聲調演變 (성조의 이분화 이론과 북경말의 불규칙적인 성조 변화)> (2021.11.04)
- (홍콩교육대학), <漢語方言在漢語語法研究中的角色: 以雙賓句為例 (중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 중국어 방언의 역할: 이중목적어 구문을 일례로)> (2021.12.23)

* 중국문학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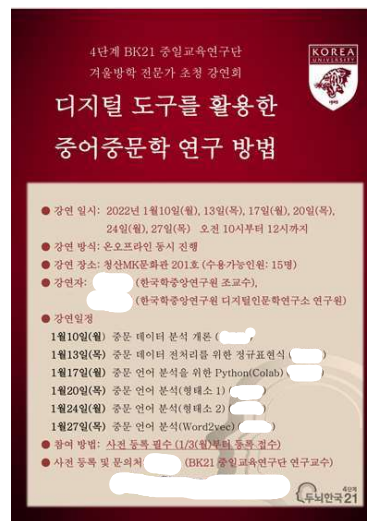
-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鐵西三劍客”與當下中國審美趣味的構成與淵源 (‘철서삼검객’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심미취향 구성과 그 연원)> (2021.12.10)
- (대만 저명 작가), <台灣歷史・自然人文與我的文學世界 (대만 역사, 자연, 인문과 나의 문학 세계)> (2022.06.09.)

* 일본어학 강연

- (일본 메지로대학(目白大學) 외국어학부), <해외 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

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 ‘일본어학·교육’ 연구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한 경력 개발> (2022.02.11)

같은 기간 전문가초청 강연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급변하는 학문 연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인문학 관련 강연회로 구성되었다. 특히 2022년 1월 디지털인문학 전문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와 연구원을 초청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6회의 강연회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 방법> 포스터

아래의 표에서 본 교육연구단이 지난 1년간 개최한 총 9건의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요약하였다.

<표 2-3> 전문가 초청강연회 - 9건(2021.09-2022.08)

	일시	강연자성명	소속	강연제목
1	2021년 9월 9일(목)		브이알에듀 대표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활용법
2	2021년 9월 16일(목)		브이알에듀 대표	오픈소스를 활용한 실습
3-8: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 방법(전문가초청강연 시리즈)				
3	2022년 1월 10일(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I. 중문 데이터 분석 개론
4	2022년 1월 13일(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II. 중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정규표현식
5	2022년 1월 17일(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III. 중문 언어 분석을 위한 Python(Colab)
6	2022년 1월 20일(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IV.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1)
7	2022년 1월 24일(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V.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 2)
8	2022년 1월 27일(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VI. 중문 언어 분석(Word2vec)
9	2022년 7월 12일(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디지털 전환시대의 중국어문학 연구

ㄴ. 외국어 강의 확대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중에는 2022년 8월 현재 총 4명의 원어민 교수(중국국적 1명, 중국계

한국국적 1명, 일본국적 2명)가 포함되어 있다. 본 학과는 한국인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본교에서 시행 중인 외국어 강의를 활발하게 실시해 왔다. 원어민 참여교수에 의한 강의를 매 학기 2과목 이상 반드시 개설하여 대학원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주안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참여대학원생의 외국어 발표능력과 토론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실적 향상, 연구활동 및 연구역량 제고, 유학 및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라.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신장과 성과 교류를 위한 제도 완비

ㄱ. 우수성과 발표회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산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21-2학기부터 매 학기 초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단 구성원들에게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각자의 연구에 적용할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중문 전공자와 일문 전공자를 발표자-토론자로 교차 지정하여 세부 전공분야 간의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우수성과 발표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에게는 포상금과 장학생 선발 시 특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9월과 2022년 3월에 실시한 제1, 2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발표회 선정자 명단 및 연구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표 2-4〉 제1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선정자 명단(2021년 9월 개최)

이름	지도 교수	과정	연구과제명	게재학술지 정보	토론자
		박사수료 7학기	상하이방언의 완료상 표지: ‘仔’와 ‘过’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106권 (2021.08)	
		석사과정 4학기	魯迅의文學現代化策略研究: 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노신의 문학 현대화 책략 연구: 그의 붓끝의 ‘귀신’의 형상을 일례로	중국어문학지 74권 (2021.03)	
		박사과정 2학기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일본학 제54집 (2021.08)	
		박사과정 3학기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 の誤用分析: 「が」「を」「で」「に」を中心に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 분석: 「가」「을」「で」「に」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27집 (2021.05)	
		박사과정 3학기	森崎和江における欠如の深淵: 「外地」日本語と植民地体験がもたらした	일어일문학 54권	

			副作用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의 결여(欠如) 심연: ‘외지’ 일본어와 식민지 체험이 가져온 부작용)	(2021.0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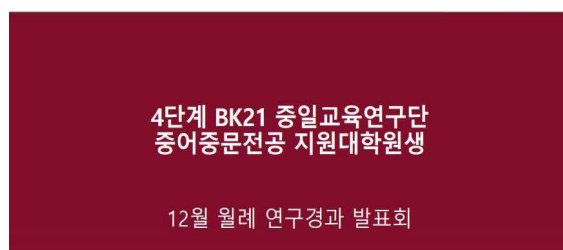
<표 2-5> 제2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선정자 명단(2022년 3월 개최)

이름	지도 교수	과정	연구과제명	게재학술지 정보	토론자
		박사수료 7학기	송대 대언체 영물시 연구(宋代代言体咏物诗研究)	한중인문학연구 73집 (2021.12)	
		박사과정 4학기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 정책 비교: 베트남 전자정부에 대한 관여를 사례로	아시아연구 25(1) (2022.02)	
		박사과정 4학기	가네코 미쓰하루(金子光晴)의 남양 체험과 인식: 『말레이난인기행(マレー蘭印紀行)』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93집 (2022.02)	

ㄴ. 참여대학원생 연구회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대학원생 공동 논문지도 세미나인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연구지원 잉큐베이터>는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전공별 멘토로 참여하여 월 1회 연구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방향 설정과 계획적인 연구 수행을 돕고 있다.

또한, 박사생 멘토와 석사생 멘티를 지정하여 구성원간의 교학상장을 꾀하였다. 매월 연구경과보고, 독서보고, 월간발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전공별 ‘월간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29일(수) 오후 3시 (Zoom 회의)

순서

1. 개회사 (단장님)
2. 발표 및 토론

시간	분야	발표자
3:00-3:45	중국고전 문학/문화	
3:45-4:15	중국현대 문학/문화	
4:15-4:30	휴식	
4:30-5:45	중국어학	

3. 폐회사 (단장님)
4. 공지사항

참여대학원생 연구지원 커뮤니티의 연구 경과 발표회

마. 연구윤리 교육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매 학기 사업 설명회에서 연구자 윤리 규정을 공지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리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는 <2022-1학기 사업 설명회 자료집>에 제시한 연구자 연구윤리규정이다.

연구자 연구윤리규정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아래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자신의 연구를 중복 게재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ㄱ. 리포트 표절 검사 프로그램 운영

본교에서는 2015년부터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Blackboard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Blackboard는 제출된 모든 리포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문, 논문 등 기존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교수자가 보다 간편하게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17-2학기부터 본교 중앙도서관은 표절예방 프로그램인 Turnitin을 구독하여 교원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도 참여대학원생의 리포트와 학위논문의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ㄴ. 연구윤리 서약서

본교 교강사가 작성하는 강의계획서에는 연구윤리 위반을 엄금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수강생들은 연구윤리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의

처리 절차 및 처벌 조항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ㄷ. 연구윤리 위반시 조치 사항

본교에서는 연구윤리 진실성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교원윤리위원회 내에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제보 처리 절차와 내부 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바. 학과의 대학원 학사 운영 내규 및 학생 안내 매뉴얼 구비

ㄱ. 본 학과와 교육연구단의 내규

본 학과의 내규에는 전공분야, 학점 취득, 전문가트랙 지정과목, 종합시험, 예비논문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내규에는 참여대학원생 선발규정, 장·단기 해외 연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내규 및 관련 서식은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https://cjerg.korea.ac.kr/cjlc/status/rule.do> 참조)

ㄴ. 오리엔테이션

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본교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이 매해 2월과 8월에 열리며, 학생 안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https://graduate.korea.ac.kr/main/main.html> 참조)

ㄷ.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본 교육연구단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 전원이 참석하며, 4단계 BK21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교육연구단 관련 책자를 배포한다. 참여대학원생 선발 과정 및 참여대학원생의 의무와 혜택을 공지하며, 전(前)학기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사. 학위취득을 위한 학과 제도 운영

ㄱ. 학과 제도

본 학과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이내의 학위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 연한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구체적인 제도와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지도교수별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월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수업과 별도의 전공 지도와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

- LAB의 조직화를 통해 연구 주제 선정에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주제 추출까지 전 과정을 수시로 관리하고 조언하여 논문 작성의 기초를 다진다.
- 월례 발표회를 통한 집단 지도 이외에도 정기적 개별 지도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 매 학기 4단계 BK21사업 참여 지원서에 연구계획서(석사생의 경우 독서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논문 제출 전 반드시 3편의 소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 기타 생활상의 문제로 대학원 생활에 곤란을 겪는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ㄴ. 학위논문 심사과정

본 학과는 아래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을 시스템화·규정화함으로써 학위 수여 절차의 선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학위논문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 본 학과의 학위논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제출 자격시험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심사
- ③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 ④ 논문 중간발표
- ⑤ 본논문 제출 및 심사
- ⑥ 대학원 심사 결과 승인과 학위 수여

ㄷ. 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는 외국어 자료에 대한 독해능력과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전공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요건으로 외국어시험과 학과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학위과정의 첫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대학원 학칙 48조). 석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1과목에 응시하며, 박사과정은 필수과목인 영어 외에 상기 외국어 과목과 한문 중에서 택일하여 총 2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학과개설 전공과목 중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그 외의 응시요건으로는 석사과정의 경우 ① 2학기 이상 재학, ② 18학점(기초공통 6학점 포함) 이상의 단위취득, ③ 평점 3.0 이상의 성적이며, 전공과목 중 최소 3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박사과정은 ① 3학기 이상 재학, ② 27학점(기초공통 12학점 포함) 이상의 단위취득, ③ 평점 3.0 이상의 성적이며, 전공과목 중

최소 4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출제이다.

종합시험의 출제는 대학원 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출제위원이 담당하며 1과목 당 2인 이상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시험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판정을 받는다. 불합격자는 차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ㄷ.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심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은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종합시험,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논문 중간발표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자에 한한다. 박사과정의 경우는 외국어·종합시험,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논문 중간발표의 과정을 통과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에 한한다.

ㄹ. 예비논문 제출 및 심사

본 학과는 학위논문의 체제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예비심사 논문 제출 및 그에 대한 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석사학위 청구자는 본 논문 제출 1개월 전, 박사학위 청구자는 1학기 전에 반드시 예비심사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본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3인에 의하여 정식 논문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다.

- 연구자트랙 학위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 이내에 예비심사 논문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 심사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가 트랙 석사학위 청구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 이내에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주임은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한다. 이때 심사위원 가운데 1인은 반드시 ‘문제탐구’ 또는 ‘창의과제’ 과목을 개설한 학과 교수여야 한다.

ㄴ. 논문 중간발표

예비논문 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해당 전공학과 교수와 재학생이 참여하는 논문 중간발표회에서 논문의 요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ㄷ. 본 논문 제출 및 심사

상기의 과정을 통과한 학위청구자에 한해 지도교수와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정식 논문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하와 같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 심사위원 선정: 본 학과는 본교 전임교수 혹은 해당 분야의 권위가 있는 타 대학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석사청구논문에는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청구논문의 경우는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박사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교외에서 위촉하고 2회 이상의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심사과정: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원에 보고한다.

○. 대학원 심사결과 승인과 학위 수여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상정하고,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는 논문의 심사 요지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성적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되며 총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학위가 수여된다.

②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은 4단계 BK21사업의 5대 교육 목표 중 ‘Trans-Society’ (트랜스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를 지향함으로써 사업성과의 보급·확산과 지식공동체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써 구성원들이 산업 및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교육 방면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1년간 각 방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역량의 대중적 실천과 확산

ㄱ.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의 공유

- 교수

인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기획한 ‘고성방가(高省芳歌: 깊은 성찰, 아름다운 울림)’ 온라인 강연에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수 ‘뤼쑤 『아큐정전』 읽기’, 교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교수 ‘『소설신수(小說神髓)』와 ‘예술’의 역할’과 같은 주제로 중국의 근대소설, 일본의 고전작품, 일본의 근대 소설론을 소개하였다. 이 온라인 강연은 현재 문과대학 온라인교육 플랫폼 ‘문광(MoonKwang)’의 ‘인문학 Lyceum’에 공개되어 다양한 전공의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들이 인문교양에 관한 강의를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 신진연구인력

신진연구인력 역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문교육 온라인 콘텐츠 ‘고성방가’ 특강을 수주하였다.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상력: 동양편’이라는 대주제의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대학원생 및 학부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인문고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나아가 스스로 인문고전을 읽고 사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과 은 공동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SF 서사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의 연장으로 이번 특강을 의뢰받았다. 각각 중국과 일본의 인문고전에 대한 강의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이를 2022년 하반기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협업하여 촬영할 예정이다. 이 콘텐츠는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MoonKwang)’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향후 문과대학 개설 교양과목 ‘인문고전 세미나’의 수업 교재로도 활용되어 광범위한 지식 공유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ㄴ. 눈높이에 맞춘 전공지식의 대중 확산

- 교수

대학원생의 기초 전공지식 향상을 위한 <중국문학사> 영상 강의를 제작, Youtube에 업로드 하여 전공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식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시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교수

2022년 1월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국민들 간의 이해지평 확대를 위하여>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주제 발표 실황을 강연으로 편집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공식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ㄷ. 사회문제 관련한 대중미디어 활동

- 교수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의 안보인식 및 대외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MBC뉴스데스크의 <일본 우익의 ‘아이콘’ 아베> 인터뷰에 응하여 향후 일본 국내와 국제 정세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2022년 3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4회 국회미래포럼>에서 미래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이는 국제뉴스와 신아일보 등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 교수

2022년 7월 교수가 참여하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롯데건설이 ‘초고령 사회 주거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니어 타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산·학

협력 사례 중 하나로, 국토일보 외 30여 개의 대중미디어에서 보도되었다.

ㄹ. 정부 관장 교육 과정 자문과 국제 교육 교류 기여

- 교수

일본내 28개 대학과 기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을 비롯하여 중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 30여개 대학 및 도서관이 참가하는 <일본 고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본고전적연구 국제 콘소시움(日本古典籍研究国際コンソーシアム, Global Consortium For Japanese Textual Scholarship, GCJTS)>에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창원시의 국제적인 문화 행사인 김달진 문학제에서 <2022년 제13회 창원KC 국제 시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달진 문학제와 관련 제반 행사는 지역문학-중앙문학-국제문학의 경계를 허물고 국내·외 시인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주요 행사로 의의가 크다.

- 교수

2021년 9월 교육부 2차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협력하여 개별강좌 <일본취업과 기업문화>, <사고와 안전의 이해>를 개발, K-MOOC 강의로 선정되었다.

- 교수

2022년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공모에서 2022년 4월 선정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취업일본어 인증과정’에서 강의 개발과 강의 진행을 수행 중이다. ‘취업일본어 인증과정’은 일본 관련 취·창업 실무에 필요한 일본어 교육 과정과 일본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일본 문화와 사회, 경제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일본어의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를 다루게 된다. <경제로 실력 쌓기 일본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까지 강의 촬영이 끝난 후 9월 이후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본 강좌는 기존의 어학 중심 강좌에서 탈피하여 일본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부합하는 일본어 구사력을 단계별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융합적 실무 어학 강좌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K-MOOC사업의 참여는 전문지식 및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ㄹ.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수

2021년 10월 고려대학교 고려사회연구센터와 GS ITM과 함께 화상 기반 전직 지원 교육 과정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화상기반 B2B 전직 지원 교육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아닷컴 외 다수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나. 대중서와 외국어 학습 교재를 통한 교양효과 증진

ㄱ. 대중서의 저술과 출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모

- 교수

공저 『인문고전 세미나-2: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교수

공저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교수

공역 『일본 철학사상 자료집』 (보고사, 2021)

(☞ 세부사항은 pp.57-58 참조)

ㄴ. 대중 외국어 학습을 위한 서비스

- 교수

공저 『문화로 보는 일본어(文化で見る日本語)』 (솔과학, 2021)는 일본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실 활동이 가능한 워크북을 포함시켜 언어와 문화를 잇는 수업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공저는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언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였다. 현재 영어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발 일본어교재의 세계화와 국내 일본어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③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교육과정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역량 육성 프로그램 마련

ㄱ. 전문가트랙 내 산업·사회 연계형 PBL 유형 교과목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추진

전문가트랙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 PBL 및 캡스톤 디자인 방식의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현재 교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가트랙의 실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에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에 진력하였으며, 그 결과가 2021-1학기부터 대학원 중일어문학과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21-1학기에는 개편된 교과목을 기초공통 과목 위주로 시험적으로 운용하였다면, 2021-2학기부터는 전문가트랙과 연계된 PBL 유형 과목(문제탐구)이 차차 개설되어 교육목표와 합치되는 교육과정이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표 2-6〉 학기별 기초공통 및 문제탐구 과목 개설 현황

학기	기초공통	문제탐구(PBL 유형)
2021-1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동아시아일본어문학()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
2021-2	동아시아문학지리학()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2022-1	동아시아언어문화() 문헌정보와자료조사() 중상급전공일본어()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향후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PBL 유형 과목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의 환류체계 구축을 고도화 해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단장인 [] 교수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76집, 2022.06) 논문을 발표하여, 대학원과 학부에서의 PBL 유형 강의 개발 및 운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 주도의 대학원 교육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 이러한 논의는 현재 실제 교과목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ㄴ. 동시대 산업사회 문제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실제적인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산업·사회의 현안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공유하는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전문가 초청 강연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제반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대학원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트랜스-동아시아학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 위주의 강연을 운영하였다.

(☞ 세부사항은 pp.20-22 참조)

ㄷ.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리빙랩(Livin Lab) 사업 선정 및 추진

2021년도 자체 평가시 본 교육연구단은 어젠다 교육과 연구의 노력이 실질적인 산업·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부분과, 지식의 대중화 및 확산 효과를 획득하는 부분에서 미진함이 있음을 진단 받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은 어젠다의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본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인 I-HOPE 리빙랩(Living lab) 사업을 신청, 8월에 최종 선정되어 관련 활동을 전개할 기틀이 마련되었다. 리빙랩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계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전문연구진과 대학원생, 학부생 및 대중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본 교육연구단의 리빙랩 활동은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신청 및 선정되었다. 본 교육연구단이 주관하고 중국학연구소와 글로벌일본연구원이 공동 참여하며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측으로부터 약 2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리빙랩 활동을 통해 학과와 교육연구단, 그리고 연구소(원)를 홍보하는 한편 그 활동 저변을 넓히고,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식의 대중 확산 효과를 획득하고자 한다.

[리빙랩 활동 개요]

- 주제: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
- 조직: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인력과 본교 문과대학 인문융합연구원 디지털인문센터의 인력, 본교 학부생 등이 참여
- 비전 및 특징: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과 부단장, 중국학연구소 소장, 글로벌일본연구원 원장 등 4인의 참여교수를 포함,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트랜스-동아시아’ 적 방법론을 통한 교육-연구-지역사회문제 해결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특히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자기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 발견에서 해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자율적 창의적 결과 도출하도록 유도

1) 대학원생

- **대학원생 비정상 회담** (한국 학생 + 외국 유학생)
주제: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
내용: 한·중·일 삼국의 감정 온도 점검, 혐오의 원인, 극복 방안 제시
- **소프트 인문콘서트** (대학원생이 진행하는 문화 강연) 기획
- 위 콘텐츠의 영상화 및 Youtube 채널 개설, 배포 관리

2) 학부생

- **탐방 브이로그**: 중국·일본 문화 탐방 2팀, 팀당 총 30분 분량 제작
- **숫 비디오**: 한·중·일 인식 조사 및 스몰테마 영상 2팀, 팀당 총 30분 분량 제작
- 영상콘텐츠 제작 위해 필드워크 참여
- 위의 결과물로 2월에 최종 발표 참가

3) 결과물 창출 계획

<표 2-7> 리빙랩 프로젝트 모듈 별 결과물 창출 계획

모듈	결과물(1차, 2차) 형태	분량	확산 채널	비고
전문가 강연	[온·오프 테마 강연] X 6회 (각 30~40분) 이를 가공, [시리즈 테마 강연] 6편 X (25~30분)	총 180분	당일 온·오프 참가 및 ‘트동TV’	각 모듈 (팀)당 기획-결과보 고서 작성 후 최종 보고서에 반영
대학원생 주도	[비정상 회담 2회 / 소프트 인문콘서트 2회] 4편 X (15분)	총 60분	당일 온·오프 참가 및 ‘트동TV’	
학부생 주도	[숏 비디오] 2팀 X 30분 [탐방 브이로그] 2팀 X 30분	총 120분	‘트동TV’	

이상의 결과물을 2022년 12월까지 제작,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전용 채널(트랜스-동아시아TV, 가칭 ‘트동TV’)을 개설하여 대중에게 1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뒤이어 2023년 2월 개최 예정인 ‘리빙랩 엑스포’에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환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관리 및 홍보 체계 구축

위의 세부 사업 실현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과 학과 내에 기획, 관리, 점검과 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본 교육연구단은 현재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추가적인 유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ㄱ. 시민 참여자를 위한 교육연구단 내 홍보 매체 활성화

- 홈페이지 접근성 증대: 2021년 3월 교육연구단 홈페이지를 본교 통합 홈페이지 플랫폼인 CMS 홈페이지로 개편, 교육연구단 홍보 매체로서 대중화 사업에 맞게 개선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 채널 개설: 리빙랩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에 ‘트동TV’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본 교육연구단과 중일어문학과와의 지식 확산 채널 겸 대중 홍보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증진: 학과 대중 활동의 인프라로 교내 중국학연구소(소장 고점복 교수)와 글로벌일본연구원(원장 채성식 교수)과 제휴, 홍보 및 행사 진행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향후 각종 강연회 기획·개최 및 대학원생-학부생 연계의 거점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①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8〉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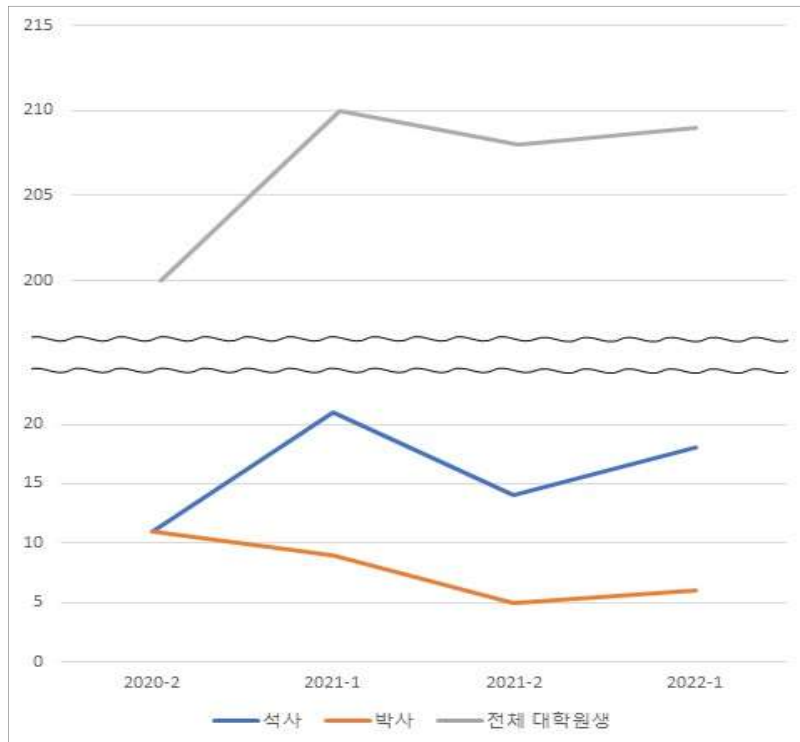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계
확보 (재학생)	2021-2학기	14	5	19
	2022-1학기	18	6	24
	계	32	11	43
배출 (졸업생)	2021-2학기	5	7	12
	2022-1학기	8	6	14
	계	13	13	26

각 영역에서 꾸준히 석사, 박사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을 확보 및 배출하고 있다. 2021-2학기 신입생은 총 19명으로 중국어학전공에서 6명, 일본어학·교육전공에서 5명, 일본문학·문화전공에서 4명,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에서 4명 확보하였다. 2022-1학기 신입생은 총 24명으로 중국어학전공에서 4명, 중국문학전공에서 6명, 일본어학·교육전공에서 9명, 일본문학·문화전공에서 5명 확보하였다.

한편, 2021-2학기 졸업생은 총 12명으로 중국어학전공에서 1명, 중국문학전공에서 5명, 일본어학·교육전공에서 5명,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에서 1명 배출하였다. 2022-1학기 졸업생은 총 14명으로 중국문학전공에서 5명, 일본어학·교육전공에서 5명, 일본문학·문화전공에서 4명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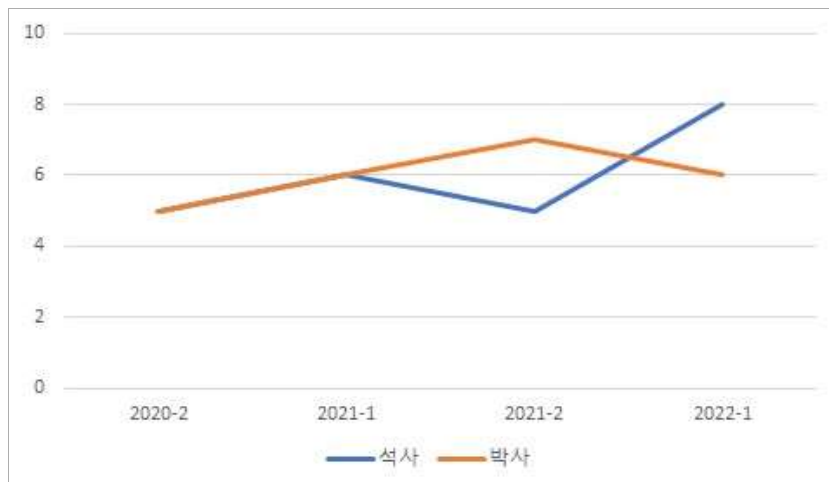
가.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인원 추이

- 석사과정 대학원생 확보 인원수는 2021-2학기의 경우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의 2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 박사과정 대학원생 확보 인원수는 2020-2학기부터 2021-2학기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1학기에 소폭 증가하였다.
- 전체 대학원생 확보 인원수는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평균 205명, 최근 1년 평균 208.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나.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배출 인원 추이

- 본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 참여대학원생 배출 인원은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 2021-2학기에 졸업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3명으로, 중국문학전공으로 진학한 학생이 1명, 일본어학·교육전공으로 진학한 학생이 2명 있었다. 2022-1학기에 졸업한 석사 대학원생 중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2명이고 각각 중국문학전공, 일본어학·교육전공으로 진학하였다.
- 그 외 유학생이 1명, 취업자가 4명(시간강사 포함 12명) 있었다.
(☞ 세부사항은 pp.40-41 참조)



②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BK 연구 장학금 제도에 대한 소개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인 ○○○ 교수가 2022학년도 후기 중일어문학과 중문 전공 대학원 입학전형 안내를 본인 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제도 중 BK 연구 장학금이 있음을 소개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6GEfEBnOFrA>).

나. 국제학술대회 지원

연구 시야 확장, 연구의 질적 향상,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연구자들의 발표를 장려하고 있다.

ㄱ.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2021.10.16-2021.10.17, 일본 개최, 온라인) 발표:

ㄴ.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2021.12.04, 일본 개최, 온라인) 발표:

다. 연구 어젠다 팀별 LAB 지원

참여교수, 국내·외 전문가, 신진연구인력, 박사과정생·수료생, 석사과정생·수료생이 각자의 전공 영역을 초월하여 트랜스-동아시아에 걸맞은 주제로 공동연구를 할 시 LAB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2-1학기 기준, 아래 5개의 주제가 채택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표 2-9> 어젠다 팀 선정 주제(2022-1학기 선정)

연구자	연구 과제명
	전시기 인도네시아 신문매체로 본 트랜스 동아시아의 가능성: 『赤道報』에서 『ジャワ・バル』까지의 변모와 그 의미
	전후 동아시아 여성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시아와 일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잡지『아시아여성교류사연구(アジア女性交流史研究)』를 중심으로
	양태와 미래시제의 관련성 및 그 발전 경로에 관한 일고찰: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중 사례를 중심으로
	트랜스컬처적 관점에서 바라본 쑨마오의 글쓰기 전략
	현대 상하이의 당대적 전환: 트랜스미디어 관점에서 바라본 《상하이의 죽음》과 《세터데이 픽션》

라. 전문가트랙

변화된 대학원 환경과 대학원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응하고자 교육 과정을 연구자 양성 과정인 ‘연구자트랙’과 전문가 양성 과정인 ‘전문가트랙’으로 나누었다. 전문가트랙은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가 적용되며 2021-2학기부터 신청을 받았고 2022-1학기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전문가트랙 양성을 위해 문제탐구 과목 6개, 창의과제 과목 6개를 개설하였다. 2022-1학기 현재 총 4명의 대학원생()이 전문가 트랙에 참여 중이다.

(☞ 세부사항은 pp.19-20 참조)

마.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활동

ㄱ.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연구단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https://cjerg.korea.ac.kr>). 해외 석학 강연, 국내 저명 학자 강연 등 각종 강연 장면을 홈페이지의 갤러리에 공개하고 있다.

ㄴ.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교양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신진연구인력이 교수자로 참여하였다. ‘논문 Clinic’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작성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와 1:1 지도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진연구인력인 은 8회에 걸쳐 총 5명을 지도하였고 그 중 1명의 참여대학원생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그 외 신진연구인력인 이 2회 참여하였다. ‘Academic Advisory’는 학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 전반에 걸친 부분을 1:1로 조언 및 지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진연구인력인 이 1회 참여하였다.

ㄷ. 기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K-MOOC <문화로 입문해서 기술로 완성하는 취업일본어> 강좌 개발 지원’에서 본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인 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 세부사항은 p.31 참조)

③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10> 2022.02/2022.08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2.02 졸업자	석사	5	3	1	0	1	0	12.50%
	박사	7			0	7	1[6]	
2022.08 졸업자	석사	8	2	0	0	6	0	25.00%
	박사	6			0	6	3[6]	
계	석사	13	5	1	0	7	0	20.00%
	박사	13			0	13	4[12]	

※ 취(창)업자(D) 중 []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수치

가. 2021-2학기 졸업생(2022.02) 취(창)업 실적

ㄱ. 취업 실적

: 수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임용

ㄴ. 진학 실적

: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 후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일본어 교육 코스(お茶の水女子大学 日本語教育コース)의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연구생으로 재학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어학·교육전공 박사과정 진학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어학·교육전공 박사과정 진학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중국문학전공 박사과정 진학

나. 2022-1학기 졸업생(2022.08) 취(창)업 실적

ㄱ. 취업 실적

: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교육전담초빙교수 임용

: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로 재직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전임교수로 재직

ㄴ. 진학 실적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어학·교육전공 박사과정 진학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중국문학전공 박사과정 진학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과 같이 박사학위자는 주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석사학위자는 국내 박사과정의 진학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이나 직장에 취업한 사례가 적었다. 다만,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취(창)업률은 2021년 2월 졸업자가 20%, 2021년 8월 졸업자가 0%, 총 10.57%에 그쳤지만, 최근 1년간 취(창)업률은 2022년 2월 졸업자 12.50%, 2022년 8월 졸업자 25%, 총 2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2022년 2월 졸업자 중에서는 이 고려대학교 시간강사로 부임하였으며, 이 2022-2학기부터 고려대학교 시간강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 중 은 2022-1학기부터 백석예술대학교 언어문화학부에서 시간강사로도 재직 중이다. 2022년 8월 졸업자 중에서는 이 고려대학교 시간강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졸업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전문가트랙은 내규가 확정·적용되어 2021-2학기에 신청자를 모집, 2022-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정을 마친 학생이 교육 현장 이외의 곳에서 활약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업적물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59편, 학술 저서 1편으로 총 60편을 기록하였다.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는 0.98편이다(환산 기준 61명, 공동논문은 1편으로 계산).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의 실적(1.19편)에 비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개별적으로는 참여대학원생 61명 중에서 논문을 연간 8편 게재한 박사수료생이 1명 있었고, 연간 6편이 1명, 3편이 8명 있었다. 최근 1년간 게재된 논문의 특징으로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에 부합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있다.

〈표 2-11〉 참여대학원생 주요 연구실적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출판연월
	法廷における戦略的談話: インボライトネスの観点から	일본학보	2021.11
	새로운 공동체 의식 속 현대적 동아시아 사유 체계의 가능성	중국학	2021.12
	‘창조’와 ‘재건’ 공간으로서의 남양(南洋) 인식: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의 『가와아카리(河明かり)』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2022.02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문학작품 속 심상지리: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22.05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	일본연구논총	2022.06
	朝鮮・韓国と接触した詩人の共通と相違: 同世代詩人, 森崎和江と茨木のり子	일본언어문화	2022.06

7. (2021), 「法廷における戦略的談話 -インボライトネスの観点から-」, 『일본학보』 129권, 한국일본학회, pp.115-143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불손의 표출에 착안하여 불손이 일어나기 쉬운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불손의 발화를 체면 위협의 유형에 따라 행위구속, 자기현시, 부정적 평가, 반대 의사·태도, 감정표출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발화 행위를 화자의 체면위협 의도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분석하였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소속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공동연구를 한층 더 장려하고 있다. 두 저자는 서로 다른 LAB 소속으로, 본 연구는 공동연구가 하나의 LAB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LAB과 LAB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두 저자는 한 차례 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22년 5월 『일본학보』 131권에 「法廷の尋問場面における戦略的談

話: 疑問文の類型を中心に」라는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되었다.

ㄴ. (2021), 「새로운 공동체 의식 속 현대적 동아시아 사유 체계의 가능성」, 『중국학』 77집, 대한중국학회, pp.431-452

본 논문은 현대중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사유의 현대적 전환을 살펴보고, 이것이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사상, 더 나아가 전 세계 사상의 일부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새로운 개인 주체성이 살아 있는 수평적 사회 질서, 그 위에 건설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그 사유 체계라고 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사유 체계가 갖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 이후의 전개에 대해 예측하였다.

ㄷ. (2022), 「‘창조’와 ‘재건’ 공간으로서의 남양(南洋) 인식: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의 『가와아카리(河明かり)』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23권 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231-261

본 논문은 1939년 4월에 발간된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의 『가와아카리(河明かり)』의 분석을 통하여 제국 일본의 남양(南洋) 인식을 검토한 것으로, 『가와아카리』에 드러난 남양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시각을 한·중·일의 주변국까지 확장한 것으로, 저자는 현재 추가적으로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남양 연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설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ㄹ. (2022),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문학작품 속 심상지리: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6권, 한국일본근대학회, pp.109-128

본 논문에서는 미야자와 겐지가 말년에 집필한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グスコブドリの伝記)』를 중심으로 심상지리적 관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 우선 겐지의 많은 작품에서 무대로 등장하는 ‘이하토브’가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이기도 한 교수의 <동아시아문학지리학> 강의의 발표문을 발전시킨 논문으로, 중국문학 전공 교수의 기초공통과목을 수강한 일본문학 전공 학생이 쓴 논문이라는 점에서 세부전공 간의 교류가 경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ㅁ. (2022),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 『일본연구논총』 55권, 현대일본학회, pp.9-38

동북아 3국의 외교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이 다룬 전략적 동반자 개념이란 탈냉전 시기 떠오른 새로운 형태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과 목표가 다층적이기에 다루는 범위가 넓어 국가의 외교 요소를 고루 짚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한 국가의 외교적 이정표가 드러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3국이 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3국 간 비교 연구는 트랜스-동아시아 시대의 지역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日. (2022), 「朝鮮・韓国と接触した詩人の共通と相違: 同世代詩人, 森崎和江と茨木のり子」, 『일본언어문화』 59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07-128

본 논문은 동시대에 살면서 조선·한국과 접촉한 두 여성 시인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와 이바라기 노리코(茨木のり子)를 연구한 논문이다.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면서 시 작품을 발표한 것 외에 각각 조선·한국과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은 두 시인의 삶과 시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접촉 경위, 공통점과 차이점의 양상을 확인하며 두 시인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공시적인 관점이 아닌 통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교류를 논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연구실적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20건, 국내학술대회 발표 30건, 사회 2건, 토론 2건이 있었다. 평가대상 1인당 학술대회 환산 건수는 0.88건이다(환산 기준 61명, 공동발표는 1건으로 계산).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당시(0.80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개별적으로는 참여대학원생 61명 중에서 최근 1년간 학술대회 발표 건수가 5건인 박사수료생과 박사과정생이 각각 1명, 4건이 3명, 3건이 3명 있었다.

〈표 2-12〉 참여대학원생 주요 학술대회 참여 실적

일시	주관	학술대회명	국내/국외	참석자	발표수
2021.10.16- 2021.10.17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제9회 온라인 대회 2021	국외		6
2021.10.23	大真大学孔子学院・在 韩中国教授学会	韩国中国学研究与汉语教学 国际学术研讨会 暨在韩中国教授学会 第二十二届全体会议	국내		1
2021.11.26- 2021.11.28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8
2021.12.04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 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국외		5
2022.02.12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6
2022.03.25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민족문화학회	2022년 제1회 韓/中 언어・문화 융・복합 국제학술대회	국외		1
2022.04.16	한국일본어문학회・ 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10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3
2022.05.21	한국일본근대학회	제44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1

2021년 12월 4일에 개최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에서 당시 본 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이었던 이 「恋人間の葛藤における言語行動様相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映像媒体の用例を資料として」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5.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가. : 논문 6편(공동연구 2편), 학술대회 활동 5건(국내 발표 4건, 초청 강연 1건)

ㄱ. 논문 실적

- (2021), 「선협(仙俠)의 위상변화와 확장적 스토리텔링 전략: 세계 창조 기술로서의 선협」, 『중국학논총』 73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215-240
- (2022), 「중국 TV드라마 속 가정주부(家庭主婦)형상의 변천과 사회적 함의: 『겨우, 서른(三十而已)』(2020)의 구자(顧佳)형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100집, 중국현대문학학회, pp.27-54
- (2022),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4권, 대한일어일문학회, pp.149-169
- (2022), 「중국 게임 <원신>의 트랜스-내셔널 스토리월드 구축」, 『글로벌문화콘텐츠』 52권,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pp.269-288
- (2022),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중국소설논총』 6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pp.495-520
- (2022), 「글로벌 서브컬처 트렌드로서의 BL과 중국 BL: 중국 BL/탐미/순애 연구에 관한 시론」, 『중국문화연구』 5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pp.63-85

ㄴ. 학술발표·강연 실적

- <대한일어일문학회 제67회 국제학술대회>(국내), 「동아시아 BL문학 비교 연구」 과 공동 발표
- <2022년 중국문화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중 수교 30년 - 한·중 문화의 상호작용>(국내),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현상으로서의 BL(Boys' Love)과 몇 가지 논점들」 발표
- <2022년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회 :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국내), 「중국 게임 「원신」의 스토리월드 구축: 트랜스-내셔널리티와 ‘캐릭터 모에’를 중심으로」 발표
- <제115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발표회>(국내), 「동아시아 SF BL 서사 비교 연구」 과 공동 발표

-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월담회 특강>, 「트랜스-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와 중국의 스토리월드 구축」 초청 강연

나. : 논문 4편(공동연구 1편), 학술대회 활동 3건(국제 발표 1건, 국내 발표 2건)

ㄱ. 논문 실적

- (2021), 「상고 한어 재귀사 자(自)의 품사 및 탄생 과정: 통시적·언어 유형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어언어연구』 97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pp.373-401

- (2022),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학논총』 76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43-74

- (2022), 「상고·중고 한어에 나타난 *N-계 지시사의 기원 고찰: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로」, 『중어중문학』 88집, 한국중어중문학회, pp.83-115

- (2022), 「중·고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서면어 교육 방안: 기능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101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pp.369-394

ㄴ. 학술발표·강연 실적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국제), 「The origin of the *N- demonstratives in Archaic and Medieval Chinese and their reflexes in modern dialects」 발표

<2022년 중국어문연구회·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연합 춘계학술대회>(국내),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예: 한·중·일 ‘自己’ 류 어휘 비교」 과 공동 발표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국내), 「중고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서면어 교육 방안」 발표

다. : 논문 3편(공동연구 1편), 학술대회 활동 3건(국내 발표 1건, 토론 2건)

ㄱ. 논문 실적

- (2021),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역이동: 사역 수단을 나타내는 선행동사(V1)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3권,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321-340

- (2022), 「자율이동을 나타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양태표현: Talmy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92권, 한국일본문화학회, pp.277-294

- (2022),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학논총』 76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43-74

ㄴ. 학술발표·강연 실적

- <2022년 중국어문연구회·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연합 춘계학술대회>(국내),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예: 한·중·일 ‘自己’ 류 어휘 비교」 과 공동 발표
- <한국일본어학회 제43회 학술대회>(국내), <한국일본어학회 제44회 학술대회>(국내) 토론자로 참여

라. : 논문 2편(공동연구 2편), 학술대회 활동 10건(국제 발표 2건, 국내 발표 3건, 국내 토론 4건, 국내 사회 1건)

ㄱ. 논문 실적

- (2022),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4권, 대한일어일문학회, pp.149-169
- (2022),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중국소설논총』 6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pp.495-520

ㄴ. 학술발표·강연 실적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주관 제9회 온라인 대회 2021>(국제), 「戦後の日本文学と映画: 三島由紀夫の原作映画を中心に」 발표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어문학교육연구단 주관 제5회 국제학술대회>(국제), 「帝国日本における南洋認識: 山田毅一『南洋大観』(1934)を中心に」 발표
-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국내), 「일본의 한류 붐 <K-문학>에 대한 고찰」 발표
- <대한일어일문학회 제67회 국제학술대회>(국내), 「동아시아 BL문학 비교 연구」 과 공동 발표
- <제115회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발표회>(국내), 「동아시아 SF BL 서사 비교 연구」 과 공동 발표
- <한국일어일문학회 2021년도 동계국제학술대회>(국내),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국내), <한국일본문화학회 제61회 국제학술대회>(국내), <한국일본학회(창립 50주년) 제104회 국제학술대회>(국내) 토론자로 참여
-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22년도 춘계국제심포지움>(국내) 사회자로 참여

마. : 논문 1편

ㄱ. 논문 실적

- (2022), 「『増補古言梯標註』に増補された言葉について」, 『일어일문학연구』 12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pp.3-22

최근 1년간 신진연구인력의 게재 논문 수는 총 13편으로, 이는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의 7편보다 증가한 수치다. 평가대상 1인당 논문 환산 편수는 3.18편이다(환산 기준 4.08명).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의 실적(1.75편, 환산 기준 4명)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자체평가에서 신진연구인력의 활동과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 내 게재 논문 수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은 4편을 게재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1편뿐이었다. 또한 공동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성찰하여 최근 1년 동안은 신진연구인력 간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구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과 이 각각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주제로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트랜스-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공동연구가 3편으로 늘어났고 현재도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은 한·중·일의 BL 문학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BL문학 비교 연구」 「동아시아 SF BL 서사 비교 연구」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와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은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예: 한·중·일 ‘自己’ 류 어휘 비교」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라는 논문으로 완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외 은 「중국 게임 <원신>의 트랜스-내셔널 스토리월드 구축」에서 중국의 오픈월드형 CCG RPG 게임 <원신(Genshin Impact, 原神)>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콘텐츠 창작-운용-전파의 측면에서 <원신>이 취하고 있는 전략을 분석하고 <원신>의 전체적인 스토리월드 구축 방식과 게임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코드이자,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로 기능하고 있는 ‘캐릭터 모에’ 코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원신>이 트랜스-내셔널 스토리월드로서 다양한 권역의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¹ 은 「상고·중고 한어에 나타난 *N-계 지시사의 기원 고찰: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로」에서 *N-계 지시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그 연구 대상을 중국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트랜스-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중국어와 인접 언어와의 접촉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위 두 논문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의 「중국 TV드라마 속 가정주부(家庭主婦)형상의 변천과 사회적 함의: 『겨우, 서른(三十而已)』(2020)의 구자(顧佳)형상을 중심으로」, 의 「중·고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서면어 교육 방안: 기능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의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역이동: 사역 수단을 나타내는 선행동사(VI)를 중심으로」 등, 각자의 전공을 심화하여 연구하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2021년도 자체 평가 당시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 논문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전파하기 위한 신진연구인력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은 최근 1년간 논문을 6편 게재하였고, 은 발표, 토론, 사회를 포함한 학술대회 활동을 10건 진행하였다.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및 ‘트랜스-National’을 지향하는 바, 그간 BK사업을 수행해오면서 교육의 기민한 국제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비록 여전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전방위적인 국제화 교류에는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류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적 질적으로 심화된 국제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가. 외국대학과의 학위교류 제도 운영

본 학과는 외국어문학 분야로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트랜스-동아시아’ 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우수 대학과 복수학위 등 학위교류 협정을 맺고 학생들의 국제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ㄱ. 시행 프로그램

TEACH(Transnational European and East Asian Culture and History), 독일 본대학(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및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学)과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시행 중이다. 그 외에 일본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과 복수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ㄴ. 추진 프로그램

현재 본교 문과대학과 협정 관계인 독일 튀빙겐대학(Eberhard Karls Universität in Tübingen) 한국학과와 교차 전공 교류를 통한 복수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 국립타이완대학(國立臺灣大學)과 약식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제를 논의 중이나 COVID-19 상황으로 잠정 연기하였다.

ㄷ. 기타 프로그램

일본 쓰쿠바대학 지정교 추천 입학(박사과정) 프로그램, 쓰쿠바대학의 지정교 추천에 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선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는 동 대학의 국제일본연구 학위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 교류 및 인재의 국제화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나. 해외학자(전임교수·초빙교수·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 석학들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개방적인 초빙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그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 해외석학 초청강연

최근 1년간 총 11명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권역별로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미국 및 독일 등의 학자들을 초청하였으며,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 학자와의 교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최신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교육연구단과 학과 차원의 국제적 접촉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 세부사항은 pp.20-22 참조)

ㄴ. 학과 외국인 객원교수와 함께 하는 국제 학술 네트워킹

본 교육연구단에는 현재 3명의 외국인 객원교수, 전임교원으로서 1명의 중국어 모국어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네트워킹 방면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외국인 교수별 소속 대학과 학술활동 권역에 대한 네트워킹으로 국내 학자, 대학원생과 연계
- 대학원생의 국제학회 발표, 국제학술지 투고 시 외국어 발표 및 학술 외국어 작문 지도 역할
- 국내 국제학회 참여 및 국내 논문지에 발표, 국내 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토론 활성화로 학과가 국제적인 학술 플랫폼이 되는 데에 기여

다. 배후 학술 유관 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국제학술 활동 및 연구역량 강화

본 교육연구단과 밀접하게 공조 관계를 유지해온 교내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서로 유리한 점을 취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ㄱ. 중국학연구소

본교 청산·MK문화관 4층에 소재하며, 자체 자료실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국학논총』을 발간하고 있으며, 기존 BK21사업과 공동 학술 행사, 국내·외 학자 초청 프로그램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

ㄴ. 글로벌일본연구원

본교 청산·MK문화관 1-3층에 소재하며 광대한 해외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반적 연구 인프라를 완비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일본연구』, 국제전문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를 발간하고 있다. 상근 교수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 생산역량이 높으며 BK21사업과 공동 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경험이 풍부하다.

㉔. 배후기관과 BK21사업의 국제화 분야 협력 가능 활동

위 기관들은 해외 우수 학술 단체와 MOU 협정, 해외 학자 초청 교류,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 연속 특별강연회, 콜로키움 등 다양한 국제화 활동영역에서 본 교육연구단과 협력이 가능하다. 향후 본교 민족문화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라.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과 중일어문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3단계 BK21Plus사업 최종년도 기준 30%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현재 45%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학과는 아래와 같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 프로그램과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외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ㄱ. 외국인 학생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연구·생활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적 시스템과 고려대학교 유관부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 및 학술용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학생 전용 한국어 논문작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 중이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게는 교양교육원 주관의 논문Clinic을 필수적으로 신청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과 심층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ㄴ. 학술용 언어 능력 심화

한국어·모국어 양국 언어를 사용한 논문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 발표는 학회 공용어로, 졸업논문은 한국어로, 자국 출판은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용 언어 능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 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은 해외 연구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확장적인 국제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교수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주관 ‘일반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과제는 국내 연구자와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교수의 연구실 소속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주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국제 교류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3〉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실적(2021.09.01-2022.08.31)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 속기관	연구내용	국제 공동연 구 실적	DOI 번호/ ISBN	기간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연구실 대학원생 참여자	국외 공동연구자					
1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대학	일본점령기전후인도네시아어문헌학 연구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	논문: DOI 번호/ 저서:I SBN	2022.07 -2025.0 6

향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은 보다 다양한 국가의 학술기관 및 학자와 가능한 공동연구의 기회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바.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현황과 향후 계획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에는 COVID-19 상황으로 일부 국제학술대회 기획이 잠정 연기 혹은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본 교육연구단은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방역 상황의 점진적 완화와 더불어 연기·중단되었던 국제 교류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장·단기 해외연수 및 비대면 국제 교류의 점진적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2023년 2월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인문학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 <제1차 KU-UI 학술교류 컨퍼런스 “트렌스 동아시아 학문적 연결성의 확대 및 심화” >가 기획 중에 있다. 이 학술대회에는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6명과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대학원생 12명이 참여하여 학술발표와 토론 및 국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1.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트랜스-동아시아’라는 연구 어젠다를 설정하고, ‘트랜스 교육과 트랜스 연구를 통한 통섭적 창의 인재 양성’과 ‘트랜스-동아시아 교육 연구 모델과 지식의 확산을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이라는 2대 교육 비전을 수립하여 각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크게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일본문학·문화, 중일지역·비교문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볼 때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는 물론, 사회과학과의 학제 간 연구까지 수행이 가능한 집단으로 자부할 수 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참여교수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한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룩하였고,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 선정 및 국내·외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는 등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참여교수의 최근 1년간의 대표적인 우수성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 제안

교수의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일본연구논총』 55권, 2022.06)는 한·중·일 3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대략적인 특징을 분석한 논문으로, 공동선언 및 협력 메커니즘의 일반적인 요소들의 존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지역 구상의 결합, 경제와 안보의 기능주의적 접근, 대외적 이슈에 대한 관점 수립의 부족 등을 공통점으로 분석한다. 안보협력과 지역 질서, 전략적 고려 등을 주요 차이점으로 논증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제휴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은 실용적인 성과이며,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로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성과 창출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성과이다.

교수의 「한국에서의 일본 미스터리 대중화(韓国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ーのポピュラリティ)」(『跨境/日本語文学研究』 13권, 2021.12)는 1945년부터 2021년까지 번역된 방대한 일본 탐정 소설의 한국에서의 수용 양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와 정치 정세, 문화 산업의 발전 상황에 영향받으며, 수용되고 발전한 일본 탐정 소설의 번역에 대해 분석한 본 논문은 단순히 일본 문학의 번역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 탐정 소설의 전파, 수용, 전이의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트랜스적 시야를 갖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copus 등재를 추진 중인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에 게재되어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기반을 마련한 논문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교수의 「동아시아의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타이완의 문학 다큐멘터리 영화 《일요일식 산보자》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75집, 2022.03)는 타이완의 실험영화 창작자 황아리(黃亞歷)의 《일요일》에 내포된 역사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맥락연구의 방식에 따라 타이완 초현실주의의 공시성과 본토성 구현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식민시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화, 식민시대 문화의 국제성 내지는 공시성과 나아가 식민 네트워크의 문화적 작용에 대한 재해석, 본토성 발굴에 대한 열기와 그 인식의 다변화 등 많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의 자료가 망라되어 있어, 본 교육연구단의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본 논문은 학문후속세대에게 유의미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는 한·일·동남아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여 「조선총독부 기간지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남양(南洋)> 지역 관련기사(1910-1935) 연구」(『일본연구』 37권, 2022.02)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근대시기 일본과 조선,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남양’이라는 이념적 방위(方位)개념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일본문화 혹은 조선문화 연구의 기반이 되며,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참여대학원생들과의 연구회를 통해 창출된 성과로 교육과 융합된 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 학습자 중심의 실무형 교육 방법론 제안

교수는 2021년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76집, 2022.06) 논문을 발표하여, 대학원과 학부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 방법인 PBL 방식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검토하였다. 이는 향후 본 대학원에 새로이 개설할 PBL 유형 과목 설계와 운영 지침의 기반을 마련한 논문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해외 학술 교류를 통한 지식의 확산

교수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주관 ‘일반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 연구자와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한국·일본·인도네시아의 작가들이 근대기에 어떠한 담론들을 생산하였고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을 둔다. 특히 조선의 신문 매체와 인도네시아의 일·인 공용어 매체의 비교를 통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아시아’라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해외 연구자와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 학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즉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동아시아 언어 현상 연구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郭璞(276-324년 A.D.)의 反切과 直音 형식의 音注와 韻文의 압운에 반영된 陰聲韻 韻母의 음운체계(음계)와 개음체계, 성모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2017,

2018, 2019). 「곽박의 진대 한어 입성은 음운 체계(郭璞의 晉代 漢語 入聲韻 음운체계)」(『중국어문논총』 107집, 2021.10)에서는 郭璞 음계 수립의 최종 단계로 그의 入聲 운모의 음운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그 음계는 上古漢語와 中古漢語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그 수립을 통해 두 시기 사이의 음변 점진에 공헌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상고에서 중고까지 이어지는 음운 변천의 타당성과 시기적 순서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교수의 「초·중급 일본어 학습자의 이메일 표현 사용 실태: 일본어 모국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初・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の使用実態: 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して)」(『日本語文学』 91권, 2022.12)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I-JAS코퍼스에 나타난 이메일 과제에 보이는 영어모어화자, 중국어모어화자, 한국어모어화자의 문말 생략 표현의 사용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영어모어화자, 중국어모어화자, 한국어모어화자의 일본어와 일본어모어화자의 일본어를 비교함으로써 언어습득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를 넘어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같은 영어권 일본어학습자도 시야에 둔 연구로서 인간의 언어습득 과정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동아시아 권역을 넘어 세계로 발신하는 일본어 교육의 사례로 그 가치가 있다.

교수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일본어 동사의 명사화에 대한 일고찰: 「연용형명사」를 중심으로」(『일본연구』 37권, 2022.02)는 일본어 동사의 명사로의 전성현상에 대해 종래의 구문론, 의미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화용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어의 연용형명사의 구문론적 특징을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경어 사용 장면에서 주목하여 의미론적 특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용론적 관점을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현상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는 한·일 언어 비교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교수의 「일본어 모국어 화자에 의한 의견표명의 발화말 양상: 완화기능과 움직임 기능에 주목하여(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意見表明の発話末の様相: 緩和機能と働きかけ機能に着目して)」(『일본어학연구』 72집, 2022.06)는 일본어의 의견표명 방식의 독자성에 착목하여 실제 회화에서 일본어모어화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모어화자는 일본어 교과서에 나오는 형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전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의견표명의 특징을 밝힐 뿐만 아니라 논문 결과를 실제 일본어 교육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등 교육과 연구 영역이 융합된 논문으로 학문적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

교수의 논문 「함축된 의미·드러난 의미·숨은 의미·그리고 내재된 의미의 구분(含義・显義・隱義与潜義之辨)」(『当代修辞学』 第228期 (2021年第6期), 2021.11)는 언어학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인 ‘implicature’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어 언어표현 속의 의미 작용을 D. 스퍼버와 D. 윌슨의 ‘explicature’ 개념과 K. 바흐의 다른 개념인 ‘implicature’, M. B. 파피의 ‘implicitness’ 등 언어학의 주요 이론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의미에 관한 현상과 세부 구조 분석 및 이해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중국 최고 저명학술지 인덱스인 CSSCI등재 중국언어학 핵심간행물인 『当代修辞学(당대수사학)』에 발표된 연구로서 언어학 연구를 세계로 발신한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 동아시아 정통 문화의 심화 연구

교수의 「일본 국보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源氏物語絵巻)의 스토리 표현에 관한 고찰: 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의 배치와 연결성」(『일본연구』 90권, 2021.12)은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絵巻)』의 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이 어떻게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스토리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지 고찰한 것이다. 종래 선행연구에서 주로 그림 화면에 국한해 시간 표현의 문제를 논해온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에마키(絵巻)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고토바가키와 그림의 배치·연결성에 주목해 고찰함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의 본래의 특성과 풍부한 스토리 표현 방법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일본 고전 해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교수의 「조선 고종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 주석과 번역(3)」(『중국어문논총』 109집, 2022.04)은 2020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 최초로 <북묘묘정비>에 주석을 달고 완역하였다. 둘째, 본 논문의 번역을 통하여, 임오군란과 갑오정변이 벌어졌을 때, 고종과 민비는 관우의 넋이 도와주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고종의 관우에 대한 인식은 소설 『삼국연의』 모종강 본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북묘묘정비>에 최초로 주석을 달았으며, 비문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 점에서 문헌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동아시아 근현대 문화의 심화 연구

교수의 「‘대일통(大一統)’ 이데올로그의 대중문화적 구현: 왕샤오샤이(王小帥) 감독의 영화 <지구천장(地久天长)>의 ‘소일통(小一統)’ 이데올로그 비판」(『중국어문논총』 73집, 2021.09)은 왕샤오샤이 감독이 2019년에 제작한 영화 <지구천장>을 통해 중국 정부의 대중문화 통제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를 통한 이데올로그 통제는 중국 정부가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구천장>에 구현된 가시적, 비가시적 문화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인 국가에 대한 비판적 시선보다 역사의 전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을 운명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으며, 그것의 핵심적 이유는 국가의 대중문화정책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대중문화와 국가의 문화정책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중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하고 있다.

교수의 「多元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と感情の交錯: 「鬼滅の刃」と韓国マンガ・アニメ受容」(『일본학보』 131권, 2022.05)는 일본 대중문화와 수용자 개인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만화·애니메이션은 글로벌 규모로 인기를 확장해 캐릭터에 대한 감성적 몰입, 일러스트·코스프레·콘텐츠의 2차 창작, 그리고 향락적인 콘텐츠 수용이나 팬덤 문화를 낳는 촉매로서 기능하고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화·애니메이션은 때때로 감정적인 반발이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와의 충돌을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글로벌한 범위로 확산되는 일본 대중문화와 지역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귀멸의 칼날>의 한국 수용을 거론하고, <귀멸의 칼날>이 어떠한 비판적인 담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귀멸의 칼날>이 수용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와 역사,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시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작품이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사(史)에서 특이한 문화현상이었음을 밝혔다.

◆ 사회문제 해결 연구 방법론 제안

교수의 「“사회적 죽음” 현상 탐색: 휘준 사건을 중심으로(“社死”现象探析: 以霍尊事件为中心)」(『한중사회과학연구』 20집, 2022.01)는 ‘휘준 사건’ 및 중국의 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기반하여, 중국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회적 죽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죽음의 속도, 강도, 그리고 범위를 측정하고 그 심각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세대의 공공 담화 참여 방식과 범위 및 반응속도,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죽음의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 즉 SNS와 같은 온라인 공공 담론장의 극단적이고 감성적인 의견 문제, 사회적으로 잊혀질 권리,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본 논문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 전공 지식의 대중 확산

교수가 참여한 『인문고전 세미나-2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는 인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기획한 ‘고성방가(高省芳歌)’ 온라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펴낸 저서이다. 학계의 결과를 교육 현장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저서에서는 사랑과 불륜이라는 주제로 일본고전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소개하며,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사회의식, 당대 현실의 시대정신 등을 담았다. 본 저서는 『뉴스1』(2022년 4월 21일자)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서 소개되어 일본고전을 새로운 시각에서 대중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은 기주 시기 두시를 다룬 네 권 중 세 번째 저서이다. 대력(大曆) 원년(元年) 말(766년)부터 대력 2년 가을까지의 시 81제 105수를 다루었다. 766년 늦봄 장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던 두보는 오늘날 중경시(重慶市)에 해당하는 기주(夔州) 지역에 체류하였는데, 창작에 몰두한 두보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평생의 작품 중 약 3분의 1을 이곳에서 남겼다. 본 저서에서는 중국의 역대 역해서의 주석에 더해 역해자들의 공동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색다른 실험을 시도했던 기주 시기의 두시 세계를 대중에 소개하였다. 가독성 높은 번역과 충실한 주석의 학술성을 인정받아 본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

서에 선정되었다.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일본 철학사상 자료집』(보고사, 2021)은 일본 난잔대학(南山大学) 난잔종교문화연구소가 국제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종교 철학 전문가인 제임스 하이직 외 2인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서양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본 지성사의 주요 전통을 이루는 불교, 유교, 신도를 비롯한 종교와 대의 철학과 미학, 지적 담론에 이르는 일본 철학사상 전반을 다루는 본 저서는 국내에 출간되기까지 일본에서의 연구자 워크숍을 비롯해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일본 철학의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사상적’, ‘철학적’, ‘이론적’으로 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두보전집 10』



『일본 철학사상 자료집』

◆ LAB을 통한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성과 창출

교수는 본 교육연구단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의 진화하는 균형 외교와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담론 및 빅 데이터 분석(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동서연구』 34권, 2022.06)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중국 정책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실존적 위협, 구조적 위협, 경제 안보, 정치 안보의 네 가지 측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방법론으로 담론 및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활용하여,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문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부족한 본 교육연구단의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를 다졌으며,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를 실질적인 성과로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참여교수 연구역량

①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1.9.1- 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비 고
	3단계 3년간(2017.01.01-2019.12.31) 실적(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4단계 1차년도 (2020.09.01- 2021.08.31) 실적	최근 1년간 (2021.09.01- 2022.08.31)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997,851	879,012	747,97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97,745	35,320	15,279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23,270	53,784	44,897	
참여교수 수	17	17	17	

②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및 추진 실적

가. 현행 체계와 지원에 따른 성과

ㄱ. 국제 저명학술지 간행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학술 지위 향상 및 관련 지식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동아시아적 특성에 맞는 인문학 중심의 국제학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에 맞추어 국제학술지를 창간하였다. 동아시아 학술연구에 특화된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는 현재 2022년 6월 14호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있으며, Scopus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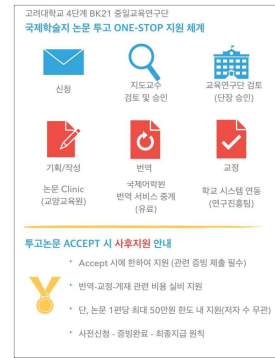
ㄴ. 국제 저명학술지 투고 지원

국제 저명학술지 창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저명학술지 투고를 적극 권장해왔다. 이에 본 교육연구단은 신청에서부터 투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1학기에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제전문학술지 투고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교육연구단에서 검토하여 지원이 진행된다. 교양교육원과 연계한 논문Clinic, 국제어학원 번역 서비스 중계, 연구진홍팀을 통한 영문 교정 시스템을 거쳐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게재비를 지원한다.

(☞ 세부사항은 <https://cjerg.korea.ac.kr/cjlc/board/data.do> 참조)



국제학술지『跨境/日本語文学研究』



국제학술지 논문 지원
ONE-STOP 지원 체계 포스터

㉔. 인센티브제 등 경쟁시스템 도입 및 성과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심화 전략’에 따른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내규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인센티브 기준을 ‘논문 실적(국내학술등재지, 해외저명학술지 구분)’, ‘저서 실적(단독 저서, 공동 저서 구분)’, ‘학술대회 발표 실적(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구분)’,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수상 내역’, ‘특강 및 강연회’, ‘학회 및 연구소 활동’, ‘담당 수업’ 등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1년도에는 6명()의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 향후에도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는 참여교수를 격려하고, 보다 활발한 학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㉕. 연구 목표 달성 전략에 따른 성과

㉕. 다양한 국제 교류 장려책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2019년부터 창궐한 COVID-19로 학술계는 국제교류의 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비대면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3단계 BK21Plus사업부터 기획해 온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은 본 교육연구단 주관으로 2021년 10월 16일과 1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10월 15일 비대면으로 차세대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타이완 정치대학 주관, 본 교육연구단 주최로 2021년 12월 4일 개최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하였다. 2022년 11월 12일에는 본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로 본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국제학술대회는 본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로 2021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2022년에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COVID-19 상황 속에서도 국제 교류 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 최근 1년간 총 20회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동아시아학의 연구 동향과 학술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강연회에 참가한 참여대학원생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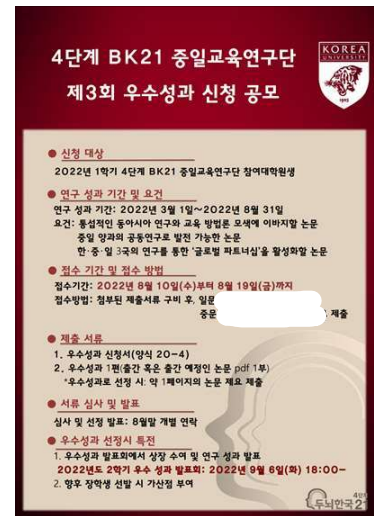
시야를 확보하고 국제적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학술대회와 해외석학 강연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적 전문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연대의 대상을 기존의 중국과 일본을 넘어 아세안 등지로 확대하여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글로벌 차원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ㄴ. LAB 간 경쟁시스템과 자율적 운영 기능 확대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최우수 성과를 내는 LAB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LAB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일본근현대문학 LAB 세미나>, <중국현대문학 LAB 세미나> 등은 비대면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LAB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해왔으며, 구성원들의 연구성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우수 성과를 내는 LAB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ㄷ. 교내·외 유사 LAB 간 트랜스 지원 연구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유사 LAB간의 공동 어젠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21년 8월에 첫 실시한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신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대학원생에게 다음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정과 인센티브 선정 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실시 중이다. 2022년 3월 8일 <2022학년도 1학기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사업설명회>에서 ‘우수연구상’ 시상식과 제2회 <우수성과 발표회>를 진행하여 중국과 일본을 망라한 5개 세부전공이 어우러진 중일어문학과와의 학술 교류와 공동 어젠다 개발 독려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6일 제3회 <우수성과 발표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산출을 독려할 목적으로 어젠다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 간 교류 증진과 트랜스 공동연구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제3회 우수성과 신청 공모 포스터

ㄹ.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간 LAB 운영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 실적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그 연구 수행의 성과물이 논문 및 학술서의 형태로 발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1년간 참여교수와 전·현 참여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 3편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 교수, 전 참여대학원생 []가 공동으로 「王力《同源字典》의 章組 성모 교체 유형 수정」(『중국어문논총』 109집, 2022.03)을 발표하였고, [] 교수, 참여대학원생 []이 공동으로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일본연구논총』 55권, 2022.06)를 발표하였다. 교수는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박사학위 취득자인 과 「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동서연구』 34권, 2022.06)을 발표함으로써 공동연구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대학원생 은 논문Clinic을 통하여 신진연구인력 의 멘토링을 받아 「빛겨간 이질적 공간: 취추바이(瞿秋白)의 소련 유기(遊記)에 대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접근」(『현대문학』 102집, 2022.08)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구 시스템의 구축으로 트랜스 연구의 공동 어젠다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성과를 논문과 학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③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가. 참여교수 논문 실적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1년간 논문 실적은 총 28편으로,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 - 28편(2021.09.01-2022.08.31)

연번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출판연월
1		‘대일통(大一統)’ 이데올로기의 대중문화적 구현: 왕샤오와이(王小帥) 감독의 영화 《지구천장(地久天长)》의 ‘소일통(小一統)’ 이데올로그 비판	중국학논총	2021.09
2		郭璞의 晉代 漢語 入聲韻 음운체계	중국어문논총	2021.10
3		일본 헤이안(平安) 전·중기 문학에 나타난 무녀상(巫女像) 고찰	日本文化学報	2021.11
4		「ネバーランド」からの逃避行: 現代サブカルチャーにおける「成熟」と「約束のネバー ランド」	일어일문학연구	2021.11
5		含义·显义·隐义与潜义之辨	当代修辞学	2021.11
6		初・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 の使用実態: 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して	日本語文学	2021.12
7		일본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絵巻)의 스토리 표현에 관한 고찰: 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의 배치와연결성	일본연구	2021.12
8		《左傳》引諺研究	중국학논총	2021.12
9		戦後マンガにおける自己表象と自己表現の交錯: 永島慎二「フーテン」を中心に	일본언어문화	2021.12
10		韓国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ーのポピュラリティー	跨境/日本語文学研究	2021.12
11		“社死”现象探析: 以霍尊事件为中心	한중사회과학연구	2022.01
12		对动宾间“的”的若干辨析	中國語文論叢	2022.01
13		조선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남양(南洋)〉 지역 관련기사(1910-1935) 연구	일본연구	2022.02
14		『경성일보』의 번역담정소설 연재와 「서류113」 수용 연구	인문사회21	2022.02
15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일본연구	2022.02

		일본어 동사의 명사화에 대한 일고찰		
16		동아시아의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타이완의 문학 다큐멘터리 영화 《일요일식 산보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2022.03
17		王力 《同源字典》의 章組 성모 교체 유형 수정	중국어문논총	2022.03
18		조선 고종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 주석과 번역(3)	중국어문논총	2022.04
19		李商隱 徐州・汴州 幕府 時期 詩 研究	중국문학	2022.05
20		多元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と感情の交錯: 「鬼滅の刃」と韓国のマンガ・アニメ受容	일본학보	2022.05
21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	일본연구논총	2022.06
22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	중국학논총	2022.06
23		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意見表明の発話末の様相: 緩和機能と働きかけ機能に着目して	일본어학연구	2022.06
24		루쉰과 관화예술: 시대의 모럴과 미학	중국학논총	2022.06
25		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	동서연구	2022.06
26		再论句子中的否定域和否定焦点	철학·사상·문화	2022.06
27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천축·진단부에 그려진 이방인: 무녀와 대칭되는 인물 설정의 의의	일본연구	2022.08
28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よる意見表明の発話末の様相: 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から	일본학보	2022.08

나.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은 총 4편으로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저서 실적 - 4편(2021.09.01-2022.8.31)

연번	저자	구분 (국내/해외)	서명	출판 정보		저자	
				출판사명	출판연 월	단 독	공 저
1		국내	일본 철학사상 자료집	보고사	2021.01		○
2		국내	인문고전 세미나-2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04		○
3		국내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12		○
4		해외	从事件链框架到汉语动词的动相结构	上海: 学林出版社	2022.02	○	

3.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4단계 BK21사업에 임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내부적 연구성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공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공동·개인별 활동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학술 집단과 대중 공동체 사이의 학술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연구단의

연구성과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기여 실적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연구성과의 사회 이슈 연계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가. 연구성과에서 산업·사회 이슈 해결로의 환류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각기 다양한 학술논문을 발표, 산업·사회문제를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내왔다. 최근 1년간 연구성과 중 보다 직접적으로 산업·사회문제 해결과 연관되는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ㄱ. 산업·사회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모색

- 교수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76집, 2022.06)

ㄴ. 4차 산업혁명·뉴미디어 시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모델 개발

- 교수의 「“사회적 죽음” 현상 탐색: 휘준 사건을 중심으로(“社死”现象探析: 以霍尊事件为中心)」(『한중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2022.01)

- 교수의 「다원적 정체성과 감정의 교착: <귀멸의 칼날>과 한국의 만화·애니메이션 수용(多元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と感情の交錯: 「鬼滅の刃」と韓国のマンガ・アニメ受容)」(『일본학보』 131권, 2022.05)

ㄷ. 동아시아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된 지식의 창출

- 교수의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일본연구논총』 55권, 2022.06)

- 교수의 「한국의 진화하는 균형 외교와 중국: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담론 및 빅데이터 분석(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동서연구』 34권 2호, 2022.06)

- 교수의 「동아시아의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타이완의 문학 다큐멘터리 영화 <일요일식 산보자>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75집, 2022.03)

나. 연구서적 저술을 통한 산업·사회문제 해결 접목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학술논문 외에도 각기 다양한 학술저서를 발간, 산업·사회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동아시아 교류와 연결, 동아시아 역사, 동아시아 철학, 동아시아 언어·문화 및 관련 제반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가 발간한 저서는 아래와 같다.

ㄱ. 동아시아의 역사·철학과 상호 이해

- 교수의 공역서 『일본철학사상 자료집』(보고사, 2021)은 제임스 하이직(James W. Heisig)의 저서를 원서로 한 번역서로, 오늘날의 일본을 ‘사상적’, ‘철학적’,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ㄴ. 동아시아 고전문학의 현대적 가치 발굴

- 교수의 공저 『인문고전 세미나-2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는 인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계의 결과를 교육 현장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아시아 고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사회의식, 당대 현실의 시대 정신 등을 다루었다.

ㄷ. 동아시아 고전문학의 한국적 재해석 및 연구 심화

- 교수의 공저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는 중국의 역대 역해서의 주석에 더해 한국 역해자들의 공동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여, 기주 시기의 두보 시를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본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ㄹ. 동아시아 언어의 트랜스 방법론적 이해 심화

- 교수의 『從事件鏈框架到漢語動詞的動相結構』(上海: 學林出版社, 2022)는 동아시아 언어 현상을 정량적 연구 방법론인 이벤트 체인 방법론(Event chain methodology)을 통해 분석한 저서로, 인지언어학과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언어·문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본 교육연구단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 결과로 도출된 연구성과를 목적에 맞춰 재구성하여 사회 일반의 용도에 적용하고 일반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펼칠 예정이다.

② 대내·외 강연 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 해외석학 강연을 통한 고품격 지식의 공유

중일 양 언어 기반 연구 플랫폼으로서 본 교육연구단에 특화된 학술 행사로, 외부로 개방하여 사회 확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도 자체 평가 기간에는 총 10명의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1년간에는 총 11명의 해외 석학을 초청하였다.

(☞ 세부사항은 p.72 참조)

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산업·사회문제 해결 모색

본 교육연구단은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술·연구와 산업·사회의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9월 이후 5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9회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세부사항은 pp.20-22 참조)

향후 기존과 같이 해외 석학 및 작가 초청강연회를 기획·개최하되, 최소 월 1회 이상 행사가 개최되도록 정규화함으로써 내부·외부 참여자들에 대한 상시 교육 효과를 추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어 강연에서 강연자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순차 통역 등 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대중 확산을 위한 학과 내 통번역 인력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한 강의 주제를 확대하고, 초청 전문인사의 분야를 더욱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및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공 관련 해외 석학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까지 초청 영역을 확대하여 청중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4.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본 교육연구단은 외국어문학을 주축으로 국제학술 활동을 특성화하고 있으며 ‘일국 중심적’ 연구를 지양해왔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트랜스-동아시아학’을 지향하면서 중국, 일본,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독일 등 미주와 유럽의 연구자들과 국제학술교류를 심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은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국제 초청강연, 국제학술지 활동, 국제학술대회 발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적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지 활동 실적

ㄱ.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실적

- 교수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한국 측 운영위원
- 교수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한국 대표(한·중·일·타이완 공동)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조직위원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

- 교수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
- ㄴ. 국제학술지 활동 실적
- 교수
- 『平安朝文学研究』 이사(2012년-현재)
- 교수
-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2014년-현재)
- 교수
- 『文化研究國際學報』 해외고문(2012년-현재)
- 浙江大學人文學院海外華人文學與文化研究中心 임원(2016년-현재)
- 교수
- 『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 편집위원(2013년-현재)
-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장(2014년-현재)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Literary Criticism(IAELC)의 Second Committee’ 집행위원(2017년-현재)
- 교수
- 『跨境/日本語文学研究』 사독위원(2017년-현재)

ㄷ. 국제학술대회(세미나·학술대회·학술 심포지움 등) 발표 실적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은 총 11건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4>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11건(2021.09-2022.08)

성명	개최국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일시
	일본	マンガ家表象と自己表現の交差する場——永島慎二と『COM』の時代	東アジアと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第9回 オンライン大会 2021	2021.10
	일본	韓国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ーのポピュラリティ	제9회 동아시아동시대일본어문학연구포럼	2021.10
	대만	《情史》「情鬼」類作品探析	明清文學的常異與裂變——第六屆中國古典文學國際學術研討會(東吳大學中國文學系)	2021.10
	일본	評価の高い作文はどのように修正されたか	2021년도 日中韓삼국 일본언어문화에	2021.11

		: 「韓国と日本」をテーマとする作文の分析から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한국	エッセイ形式の震災マンガにおける「3.11」表象の両義性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会	2021.11
	한국	在朝日本人の変格探偵小説: 「顛倒」への欲望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会	2021.11
	한국	Eメールに見られる「言いさし表現」の特徴－韓・中・英の日本語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データに基づいて－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会	2021.11
	일본	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見られる断りのストラテジー－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じて－	2021年度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 フォーラム	2021.12
	한국	意見陳述の終結部における聞き手の反応: 学習者の日本語熟達度による比較から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	2022.02
	독일	The Epidemic of Poisonous Women and Germination of Desire for the Modern in Meiji Japan	Captivating Criminality 8: Crime Fiction, Femininities, Masculinities	2022.06
	싱가포르	現代漢語周遍性主語中周遍義的形成原因	第二十二屆中國語言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 (新加坡新躍社科大學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2022.07

나. 대표 국제 저술 활동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교수들은 미국·중국·일본 및 타이완 등지에서 국제 저술 활동에 참여하여 학문적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발간된 국제 저서로는, 앞서 소개한 교수의 『從事件鏈框架到漢語動詞的動相結構』(上海: 學林出版社, 2022)가 있으며, 이는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일반프로젝트(国家社会科学基金一般项目)’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중국어의 언어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이다.

②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지난 3단계 BK21Plus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정체결, 각종 국제학술대회 주최,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기존의 공동연구는 참여교수 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본 교육연구단의 주도로 제반 트랜스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확장형 국제교류 모델의 지속적인 창출

2021년도 자체 평가 시기에는 국제 공동연구 3건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지속적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혹은 신규 수주하여 국제교류 모델을

확장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건수는 총 2건이다.

ㄱ. 교수

현재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교수와 히로시마대학의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련 성과물을 도출 중이다.

ㄴ. 교수

2022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연구자와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한국·일본·인도네시아의 작가들이 근대기에 어떠한 담론들을 생산하였고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을 둔다. 특히 조선의 신문매체와 인도네시아의 일·인 공용어 매체의 비교를 통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아시아’라는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동아시아에 국한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즉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3-5>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2021.09-2022.08) 및 예정 사항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의 공동연구자			
1			일본,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일본, 히로시마 대학	-	-
2			인도네시아, 아를랑가 대학(Universitas Airlangg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	-	-

이후 기존의 국제 학술교류를 국제적 전문가 간 연대로 발전시키고 연대의 대상을 기존의 중국·일본·타이완·호주·독일 등은 물론 아세안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글로벌 차원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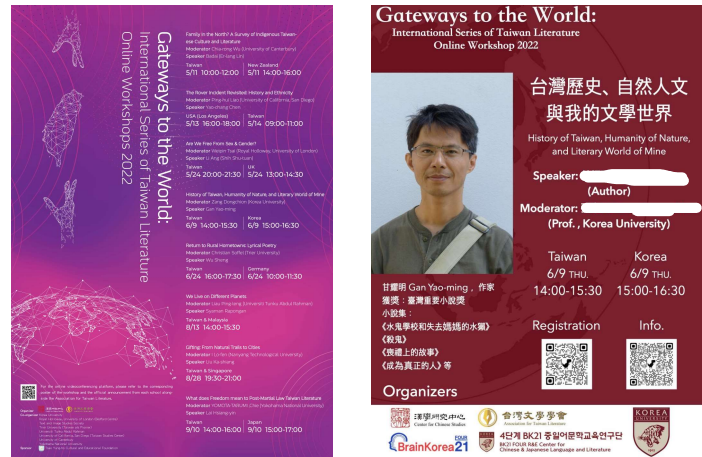
나. 광역화된 연구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강화와 연구역량 확장

ㄱ.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해외 연구자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네트워크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외 연구자 및 해외 대학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학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2022년 6 교수의 주도로 대만의 한학연구중심(漢學研究中心)과 대만문학학회(臺灣文學學會)가 공동 주관하고 세계 8개 우수 대학이 파트너로서 공동 주최한 대규모 학술 및 대중강연 활동 <Gateways to the World, 前進世界: 臺灣文學海外講座系列>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에

는 국내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려대학교 본 교육연구단이 파트너로 초청되었으며, 각 대학이 세계 석학과 저명 작가 등을 초청하여 시리즈 강연을 구성하여 학계와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장동천 교수는 한국 측 좌장(Moderator)으로서 국제 교류 네트워킹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본 활동의 결과는 한학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서 홍보되어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



〈Gateways to the World, 前進世界: 臺灣文學海外講座系列〉

국제 포스터 및 본 교육연구단 주최 강연 포스터

- 2021년 교수는 중국 베이징언어문화대학 등이 주관한 <世界漢學家傳播中國語言和文化>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국제 문화 교류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2021년도 CCTSS 우수공헌상(CCTSS: Chinese Culture Translation & Studies Support, 中國文化翻譯研究貢獻)’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2021년 1년간 중국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교류의 공로가 두드러지는 18개 국가 23명의 외교관, 학자, 번역가 등에게 수여되었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국제 네트워킹이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받는 내실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022년 8월 교수는 다국적 기업 도시바(Toshiba, 東芝)의 공익재단법인인 도시바국제 교류재단과 교류하여 국제 산학협력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도시바국제 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여행)하는 일본어문학>이라는 대주제로 2022년 9월 2일 <2022년 고려대학 글로벌일본연구원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의 교수

의 기조강연과 함께,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교수와 교수를 포함한 교수 7명이 학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ㄴ.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주최·주관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한국·중국·일본·타이완·미국·유럽 등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와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특히 아래의 학술회의는 정례화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사례이며, 그 최근 1년 개최 현황과 향후 개최 계획은 아래와 같다.

-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 포럼>: 타이완 정치대학 주관, 본 교육연구단 주최로 2021년 12월 4일 비대면 개최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2022년 11월 12일 본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로 개최 예정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본 교육연구단 주관, 2021년 10월 16-17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2022년에는 10월 15일 비대면으로 ‘차세대 포럼’ 개최 예정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본 교육연구단 공동 주최로 2021년 11월 26-28일 비대면 개최. 2022년 11월 4-6일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공동 주최로 개최 예정

향후 상술한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를 논문, 저서, SNS, 각종 자료 등으로 완성·가공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홍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이 해외 저명 학자들과 국제학술지로 창간한 『跨境/日本語文學研究』는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㉔. 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확장

- 2010년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 문화연구과의 석사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DMDP) 협정을 비롯하여, 2015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대학원 문학연구과, 중국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인문학원 중문과, 2017년 중국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 국제문학윤리비평연구센터 등 총 4건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교수의 참여로 본교와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사이에 체결된 MOU를 심화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과 인도네시아대학의 UI인문학부 사이에 MOU를 추가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 수준에 이르는 확장된 교육·연구 교류 관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이와 더불어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인적이동 제한에 대응하여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학자 및 대학원생과 원격화상 학술회의 및 교류회 등을 적극 활성화·제도화하고 있다.

다. 세계적 석학의 개방적 초빙으로 동아시아학 허브 구축

본 교육연구단은 최근 1년간 총 11회에 이르는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참여대학원생에게 동아시아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폭넓은 연구 시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체험하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장되고 개방된 비대면 강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동아시아 언어 연구, 동아시아 문학 현상, 트랜스-아시아 인구 이동과 사회 문제, 트랜스-동아시아적 인재상, 문학지리학 연구방법 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부합하는 석학 초청강연을 기획 및 개최하여 학술교류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표 3-6〉 최근 1년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 11건(2021.09-2022.08)

일시	강연자	소속	제목
2021.09.23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경영대학원	태국과 주변국들 관계로 본 동남아
2021.10.22		미국 Stony Brook University Dept. of Linguistics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최근 동향: 의문부정사와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2021.11.04		홍콩과기대학 인문학부	声调两级分化理论与北京话不规则的声调演变 (성조양극분화 이론과 북경어의 불규칙적 성조 변화)
2021.11.19		광저우대학(廣州大學) 인문학원	文学地理学的研究方法 (문학지리학의 연구방법)
2021.11.26		니혼대학(日本大學)	巴別之後: 華語語系文学 (Sinophone Literature) 的策略性及声音問題 (시노폰 문학의 책략성과 음성 문제)
2021.12.10		베이징대학(北京大學)	铁西三剑客”与当下中国审美趣味的构成与渊源 (‘철서삼검객’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심미취향 구성과 그 연원)
2021.12.23		홍콩교육대학	漢語方言在漢語語法研究中的角色: 以雙賓句為例 (중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 중국어 방언의 역할-이중목적어 구문을 일례로)
2022.02.11		메지로대학(目白大學) 외국어학부	해외 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 ‘일본어학·교육’ 연구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한 경력 개발
2022.06.09		대만 저명 작가	台灣歷史・自然人文與我的文學世界 History of Taiwan, Humanity of Nature, and Literary World of Mine (대만의 역사, 자연인문과 나의 문학 세계)
2022.06.17		독일 University of Tübingen Modern Taiwan Studies, Dept. of Chinese Studies	亞洲跨境移動與性別: 以台灣為例 Trans-Asia Mobilities and Gender: migration to and from Taiwan (트랜스-아시아적 모빌리티와 젠더: 대만을 사례로)
2022.07.1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Dept. of Asian languages & literature	Sinographic script borrowing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의 한자 차용 및 전파 양상)

Ⅲ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팀)명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팀)장명	

연 번	구 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 목/ 수상명 등	관 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성과	베리타스알과 외 2건	2021.09.06	고려사이버대, 2021년 2차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진행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537
		교수가 고려사이버대와 협력하여 교육부가 주최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별강좌 <일본취업과 기업문화>, <사고와 안전의 이해> 개발에 참여			
2	행사	교수신문 외 3건	2021.10.05	고려대 명예교수, 제18회 제니마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7808
		교수가 시상식에 참여			
3	성과	동아닷컴 외 9건	2021.10.08	GS ITM,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화상 기반 전직지원교육 과정 공동개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08/109616724/1
		교수가 참여하여 GS ITM와 ‘화상 기반 B2B 전직 지원 교육 사업’ 업무 협약 체결			
4	성과	에듀동아	2022.02.14	고려사이버대 “고려대 문과대학과 공동으로 교과목 개발 업무협약”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220214152739944583
		교수가 참여하여 고려사이버대와 공동으로 교과목을 개발하는 업무협력협약 체결			
5	기타	아시아타임즈 외 8건	2022.03.02	고려대 문과대학, ‘디지털 인문학 입문’ 교과목 신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302500290
		교수가 참여하여 문과대 융복합 교과목 <디지털 인문학 입문> 개설			
6	성과	국제뉴스 외 2건	2022.03.31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

				국회메리포럼' 개최	7376
		교수가 포럼에 참여하여 미래인식과 대전략 발표			
7	성과	대학저널 외 3건	2022.04.14	고려사이버대, K-MOOC에 '취업일본어 인증과정' 선정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7
		교수가 고려사이버대와의 컨소시엄으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강의 개발에 참여			
8	성과	뉴스1 외 3건	2022.04.21	고려대 교수들이 말하는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https://www.news1.kr/articles/?4655529
		교수가 참여하여 인문고전세미나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출간			
9	행사	한국대학신문 외 2건	2022.06.22	고려대, 문과대학 명예의 전당 제작 기념 제막식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2_0001916599&cID=10201&pID=10200
		교수가 참여하여 문과대학 명예의 전당(Donor Recognition Wall)을 제작하고 제막식을 개최			
10	기타	MBC	2022.07.08	일본 우익의 '아이콘' 아베	https://news.v.daum.net/v/20220708195814194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교수의 인터뷰			
11	성과	국토일보 외 34건	2022.07.19	롯데건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MOU... 'VL르웨스트'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도입한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96
		교수가 참여하여 롯데건설과 '초고령 사회 주거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니어타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무 협약 체결			
12	성과	에너지경제 외2건	2022.08.11	고려대, 디지털과 인문학의 협력과 상생 위해 '디지털인문센터' 개소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11010002196
		교수가 디지털인문센터장에 취임			